

『한양』 게재 시편의 변화 과정 연구

- 庚連과 鄭英勳의 시를 중심으로

손 남 훈*

차 례

- | | |
|------------------------------|-------------------------|
| 1. 제일한인 지식인 잡지 『漢陽』의 연구 경향 | 1) 디아스포라 의식과 감상적 세계관 |
| 2. 『한양』 내에서 庚連과 鄭英勳의 위상 | 2) 민족 동일성의 회복과 '자유'의 강조 |
| 3. 『한양』의 편집 방향과 庚連·鄭英勳 시의 경향 | 3) 혁명적 로맨티시즘과 적대적 타자 비판 |
| | 4. 결론과 한계 |

국문초록

제일한인 지식인 잡지 『한양』은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제일한인 지식인들의 한국에 대한 정치·사회·문화적 담론을 결집시키고 주도한 종합지였다. 그러나 방대한 텍스트의 분량, 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 반입이 금지된 사정, 작가의 전기적 정보의 누락 등으로 지금까지 그 실체를 올바르게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본고는 『한양』에 가장 많은 시를 기고한 경련과 정영훈의 작품 세계

* 부산대학교 강사

와 그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한양』의 편집방향과 그와 관련되는 문학작품의 실체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였다.

우선, 1960년대 『한양』의 문학적 경향은 70년대와는 달리,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했다. 경련과 정영훈의 초기 작품들이 디아스포라 의식에 기반을 둔 소박한 감상적 세계관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이와 관련된다.

그럼에도 『한양』은 전통의 회복을 통해 민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담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잡지의 성격을 점차 굳혀갔다. 경련과 정영훈의 작품 또한 전통 이미지의 호출을 통해 민족 동일성을 회복하려는 시적 상상력을 제시했다.

또한 『한양』은 4·19혁명의 의의를 ‘혁명적 로맨티시즘’으로 전유하면서, 이를 사회 발전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했다. 60년대 4·19혁명을 소재로 한 경련과 정영훈의 시편들에서 ‘혁명적 로맨티시즘’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70년대 중반 이후, 『한양』은 유신체제의 수립에 따른 한국정부에 대한 실망, 남북회담의 실패, 문인간첩단 사건 등으로 한국정부 및 미국을 비판하거나 독재에 항거한 인물들을 옹호하는 등 군부독재에 대한 항쟁 의지를 북돋는 방향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경련과 정영훈 역시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과 적대의식으로 가득 찬 구호적이고 경직된 시편들을 제출함으로써 시세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주제어 : 『한양』, 경련, 정영훈,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전통, 민족, 4·19 혁명, 편집방향, 작품세계

1. 재일한인 지식인 잡지 『漢陽』의 연구 경향

재일한인¹⁾잡지 『漢陽』(편집 겸 발행인 김인재)²⁾은 1962년 3월 1일 첫 발행을 시작으로, 1984년 3월 1일 통권 177호로 폐간되기까지³⁾ 재일 지식인들의 한국에 대한 정치·문화·사회적 담론을 결집시키고 주도한 종합지였다. 즉 『한양』은 한국의 당대 담론과 사회 현실에 깊게 관여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근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일본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주로 한국의 민주화와 근대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한양』의 편집 방향은,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층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이끌어내고자 했고, 『한양』의 지면이 한국의 지식인층과 문학인들에게 많이 할애될 수 있게 했다.

특히 한국의 많은 문학가들이 『한양』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고 문인 간 교류를 행했다⁴⁾는 사실은 『한양』을 문학사적 관점에서 독특한 위상을 갖게 하는 데 모자람이 없게 한다. 『한양』 소재 시문학은 국내 시인의 작품이든 재일 한인 시인의 작품이든 한민족문학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양의 작품이므로, 앞으로 한민족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잡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의 문학적 지향점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는 아직 시도된 바 없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한양』의 문학적 실체에 대한 연구 성과가 조

1) ‘재일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현홍, 『재일한인의 생활사 이야기와 문학』, 부산대학교출판부, 2014, 14-15쪽 참조.

2) 이하 인용 시에는 『한양』이라 표기하고 발간년과 호수, 쪽수를 기록한다.

3) 『한양』은 1962년 3월호부터 1969년 7월호까지 월간으로, 이후 중간 때까지 격월간으로 발행되었다.

4) 『한양』이 한국문단과 교류한 사실은 특히 『한양』 1972년 2·3월호 ‘창간10주년 기념축사’에 잘 나타난다. 문인들로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박종화, 백철, 모운숙, 김동리, 조연현, 정비석, 안수길, 박화성, 유주현 등이 축사를 보내오고 있다. 『한양』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문인이나 정계 인사들과 별 문제없이 지내왔음을 알 수 있다.

5) 하상일, 『한국문학과 역사의 그늘』, 소명출판, 2008, 106쪽.

금씩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비평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⁶⁾ 소설이나 시에 대해서는 소략하거나 60년대에 한정해서 연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수필의 경우에도 『한양』의 문학적 성과물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목록이 정리되고 대강의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것은 최근이다.⁷⁾ 그만큼 『한양』의 문학적 경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 성과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62년부터 84년 초까지 오랜 기간 『한양』이 발행되어 왔고, 제일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식인층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60~70년대에 발간된 지식인잡지들에 비해 연구 성과물이 많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먼저, 『한양』 잡지의 전반적인 실체가 최근까지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 특히 1974년에 있었던 소위 문인간첩단 사건은 『한양』의 국내 반입을 결정적으로 막았고 이 때문에 70년대 이후 『한양』의 본 모습은 최근까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6) 허윤희, 「1960년대 참여문학론의 도정-『비평작업』, 『청맥』, 『한양』을 중심으로, 『희귀잡지로 본 문학사』, 상허문화회 편, 깊은샘, 2002; 박수연, 「1960년대의 시적 리얼리티 논의 -장일우의 『한양』지 시평과 한국문단의 반응」, 『한국언어문학』 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김유중, 「장일우 문학비평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7집, 2005.06;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 연구 -『한양』, 『청맥』, 『창작과비평』, 『상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하상일, 「제일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42집, 한국문학회, 2006; 고명철,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1960년대 비평 담론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19집, 한민족문화학회, 2006; 한승우, 「『한양』지에 드러난 제일지식인들의 문제의식 고찰」, 『어문론집』 제36집, 중앙어문학회, 2007; 조현일, 「『한양』지의 장일우, 김순남 평론에 나타난 민족주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06; 하상일, 「장일우 문학비평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30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08; 하상일, 「김순남 문학비평 연구」, 『우리문학연구』 31집, 2010.11 등의 성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이현홍, 앞의 책. 특히 이 책의 부록에는 『한양』의 소설 목록과 수필 목록이 총정리되어 있다.

두 번째, 20여년에 걸친 긴 발행 기간과 177호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한양』은 초기에는 월간지로, 1969년 8·9월호부터는 격월간지로 발행되었기에 같은 기간의 계간지에 비해 텍스트의 분량이 방대하다. 문학작품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소설은 279편, 수필은 810편이며⁸⁾ 시는 대략 2,000여 편 정도로 알려져 있다.⁹⁾ 또한 평론도 271편¹⁰⁾이 실려있어 만만찮은 분량을 자랑한다.¹¹⁾

『한양』이 지닌 텍스트의 방대함은 곧 잡지의 편집 방향이나 문학사적 의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한양』은 당대의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이에 따라 담론의 양상과 초점의 변화도 심했다. 따라서 『한양』을 종합적으로 바라본 연구 성과가 쉽게 나오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세 번째, 글쓴이의 실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현홍·하상일의 논문에 밝혀져 있는 것처럼¹²⁾, 『한양』 발행인 김인재(金仁在)의 침묵은 『한양』의 문학적 실체와 편집 경향, 인적 네트워크의 판별 등 『한양』의 문학사회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망설임을 안겨주는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널리 알려진 한국인 문학가나 지식인의 작품에 대해서는 그 문학적 성과를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한양』에 기고했던 많은 작가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재일한인인지, 한국인인지도 입증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필명 여부도 판별할 수가 없다. 부족하게나마, 필자의 술

8) 이현홍, 위의 책, 부록 참조.

9) 하상일, 「1960년대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의 성격과 의미」, 『한국문학과 역사의 그늘』, 152쪽.

10)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비평전략』, 소명출판, 2008. 부록의 『한양』 문학비평 목록 참조.

11) 본고에서 제시된 작품 목록은 이현홍·하상일 등의 참고문헌과 더불어, 이현홍·이재봉 등이 따로 정리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다시금 『한양』의 본문을 확인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12) 이현홍, 「에스닉 잡지 소재 재일한인 생활사소설의 양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47집, 2007.12, 114쪽; 하상일, 「1960년대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연구」,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적 이해』, 소명출판, 2011, 88쪽.

직한 생활 경험을 담은 것이라고 가정되는 수필에서 어느 정도 흐릿한 윤곽을 잡아낼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할 뿐이다.

이와 같은 『한양』 연구의 걸림들은 『한양』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담보 상태에 머무르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은 검열로 인해 한국의 언론과 출판이 나름의 역할을 하지 못한 60년대에서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체제 비판적인 진보적 지식인들과 문학인들이 한국어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유일한 창구였다. 따라서 한국의 지식인 담론과 문학적 흐름을 살피는 데 있어 주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 문학사의 결락을 메우고, 또한 문학사의 맥락을 ‘국가 중심’으로 바라보려는 태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한양』의 문학적 성과들은 집대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한양』 게재 시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양』 편집진들의 편집 방향과 담론의 결을 쓰다듬음으로써 『한양』 게재 문학과 편집 방향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한양』이 지닌 성향을 좀 더 면밀하게 고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한양』 게재 시편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경련과 정영훈의 시편들에 대한 분석을 가하고자 한다.

2. 『한양』 내에서 庚連과 鄭英勳의 위상

『한양』은 매호 4~5편 내외, 많은 경우에는 10편 정도의 시를 싣고 있다. 시를 게재한 시인 중에는 구상, 김남조, 고은, 서정주, 박재삼, 신석초, 김수영, 홍윤숙, 김용호, 박두진, 안장현, 박성룡 등 한국의 유명 시인들 뿐만 아니라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재일 한인 시인들도 있다. 그 중 경련과 정영훈은 『한양』의 초기에서부터 폐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시작활동을 한 시인이다.

먼저, 경련이 『한양』 지에 게재한 작품 수를 살펴보면, 62년 3월 창간

호에 3편의 시를 발표한 이후 83년 11·12월호(통권 175호)까지 153편의 시를 기고하였다.¹³⁾ 평론 1편과 수필 5편도 있다.¹⁴⁾ 정영훈의 경우, 62년 4월호에 「四月의 광장」을 발표한 이후 84년 3·4월호(통권 177호, 폐간호)까지 144편의 시를 기고하였다. 평론 3편과 수필 4편도 있다.¹⁵⁾

경련과 정영훈은 『한양』 지 전체를 통틀어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작품을 써 온 시인들이다. 이는 곧 『한양』 시문학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두 시인의 시적 경향과 그 변화 양상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련과 정영훈은 재일한인 시인¹⁶⁾으로서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인의 이력과 작품의 관계를 조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작품에 나타난 시인의 시적 세계관과 미학적 태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것만으로도 『한양』의 문학적·미학적 경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한양』의 편집 방향과 그 변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경련과 정영훈은 『한양』 편집진들의 기획 방향과 일치하는 시를 써 왔고¹⁷⁾, 그만큼 『한양』의 정치적 성향이나 미학적 태도와 일치하

13) 하상일은 경련의 시를 146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상일,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조선문예』, 『한양』, 『삼천리』, 『청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역사의 그늘』, 104-105쪽.) 그러나 필자의 확인 결과 경련 시의 총 편수는 153편이다.

14) 이현홍, 「『한양』 소재 재일한인문학의 연구 방향과 과제」, 『한국민족문화』 25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112쪽의 「<표2> 『한양』 소재 수필 목록」에는 경련의 수필을 3편으로 파악했다.

15) 이현홍, 위의 논문, 112쪽의 「<표2> 『한양』 소재 수필 목록」에는 정영훈의 수필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16) 『경향신문』의 다음과 같은 기사는 경련과 정영훈이 재일한인임을 알려주는 객관적인 표지라 할 수 있다. “日本에서 교포들이 내고 있는 교양잡지 『漢陽』에詩를 발표해온 국내및在日교포詩人들이새로 『漢陽詩苑』이란 同人誌를 꾸민다. 이 달안으로 서울에서 創刊號를낼예정. ▲同人=庚連(在日), 金南石 金魚水, 金容浩(···중략···) 鄭英勳(在日)(···하략···)”(『漢陽詩苑』 創刊刊, 『경향신문』, 1965.02.03, 5면.)

17) 경련의 수필 중 다음 구절은 『한양』의 편집 방향과 시인 간의 관계를 짐작하게

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한양』은 동인지가 아니다.¹⁸⁾ 그러나 잡지의 초점이나 방향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오랜 기간 한 잡지에 작품을 기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시인의 작품 경향이 잡지의 성격과 잘 맞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모든 『한양』 소개 문학작품(시편을 포함하여)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참여문학론에 입각한 지향점을 보여주었던 것은 아니다. 순수 지향 또는 모더니즘 지향적인 시편들도 발견할 수 있고 자기감상적인 소박한 리리시즘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시조와 같은 정형시 뿐만 아니라 실험적인 형태시도 『한양』에 게재되었다. 특히 한국 문단과 교류가 활발했던 1960년대 『한양』의 시편들에는 내용적·형식적인 다양성을 더 풍부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경련과 정영훈과 같은 재일한인들의 시편은 줄곧 재일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시편에 녹여내면서 잡지의 편집 방향에 모순되지 않는 내용을 선보여왔다. 시인의 작품 경향을 통해 잡지의 성격과 문학적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왔던 것이다.

한다. “編輯者로부터 「三·一」에 對한 詩를 써 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받은 後, 요 며칠 내내 그 날의 그 피외침이 살아와서 가슴을 진정할 수 없던 차에 故國의 詩人들이 이 운동에 바친 作品들을 훑어 보다가 그만 제 작품 쓸 생각은 까맣게 잊어 버리고 있어 아까부터 이런 생각만 뇌이고 있는 것이다.”(경련, 「三月의 詩」, 『한양』 1964년 3월호, 270쪽.) 즉 『한양』 편집진은 시인에게 특정한 주제의 시를 요구했고, 시인은 이에 부응하는 시편을 써 왔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정영훈의 수필에서 위와 같은 구절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18) 각주 16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양』에 기고한 시인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양시원』이라는 동인지를 발간하려 한 것은 『한양』이 초기부터 동인지적 성격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한양시원』은 한국에서 발간되지 못한 것 같다. 필자는 『한양시원』의 발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 출판물 총목록』의 1965년, 1966년도 시집 발간 목록을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3. 『한양』의 편집 방향과 庚連·鄭英勳 시의 경향

경련과 정영훈의 시적 경향은 비슷한 시기에 함께 『한양』에 기고한 재일한인 시인들과 대체로 유사한 면이 있다. 즉 경련과 정영훈은 재일한인으로서 다른 재일한인 시인들과 유사한 생활 체험에 기반을 두고 있고, 민족주의 문학론에 기반을 둔 미학적 태도 또한 방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고국의 근대화를 열망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한양』 편집진들은 미학적 혁신이나 시적 개성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당대의 사회적 발언으로서의 시편을 재일한인 시인들에게 요청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 게재 시편은 한국 시인들의 다채로운 경향과는 다소 구별되게, 시인의 시적 독특성보다는 유사성을 많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사성은 곧 『한양』 게재 문학의 전반적인 방향을 암시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련과 정영훈의 시를 통해 『한양』의 전반적인 문학적 경향을 살펴보려는 본고의 방식은 일정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경련과 정영훈의 시편들의 변화 양상을 『한양』의 편집방향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경련과 정영훈의 시편의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한양』의 편집 방향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한양』의 편집 방향은 창간부터 1970년대 중반(제1기)까지, 1970년대 중반~1970년대 말(제2기)까지, 1980년대 초~종간(제3기)까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1기의 경우, 『한양』 편집진들은 한국의 지식인·정치인들에 다소 협조적이면서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한일회담 반대, 정권 비리와 같은 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아끼지 않은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호 ‘편집후기’에서는 대체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의견을 개진하는 데 특집 글들을 실은 본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공격

보다는 대안 제시를 통한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에 따라 경련과 정영훈도 재일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거나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담거나, 한국의 발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민족애를 강조하는 시편들을 많이 제출한다.

2기의 경우, 소위 문인간첩단사건에 의해 『한양』의 한국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한양』은 기존의 비판적 대안 제시라는 명분을 버리고 한국에 대한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베틀는 편집 방향을 보여주었다. 이에 경련과 정영훈의 시편에서는 군부독재에 대한 비판과 혁명에의 모색, 한국의 표면적인 경제적 발전이 지니고 있는 허위를 폭로하는 작품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3기에는 신군부에 대한 비판과 혁명 의지의 모색을 더욱 구체화하는 편집 방향을 보여준다. 더욱이 1980년 5월에 있었던 ‘광주항쟁’은 신군부에 대한 비난의 근거이자 혁명 의지의 중핵이었다. 경련과 정영훈의 시편들 또한 시적 표현을 가다듬기보다는 직설에 가까울 정도로 당대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주를 이루며 ‘광주항쟁’ 이후 혁명에의 의지를 다지는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본고는 『한양』에 수록되어 있는 경련과 정영훈의 모든 시편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양상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시에서는 확인되기 어려운 시인의 세계관이나 시적 방향 등에 대하여 그들이 쓴 비평과 수필도 함께 다룸으로써, 궁극적으로 『한양』 게재 시문학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 한다.

1) 디아스포라 의식과 감상적 세계관

『한양』은 재일 지식인들이 주축이 된 잡지이고 경련과 정영훈 역시 재일 문학인이다. 따라서 『한양』 편집진의 방향과 경련·정영훈의 시적 경향은 우선, 디아스포라로서의 자기 감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뚜-/ 황혼이 밀물처럼/ 밀려드는 항구에/ 비명같은 뱃고동소리// 기진한
듯 늘어져 누운 페브먼트 위에/ 천근 무게를 떠 받들고/ 휘청이는 여윈
발길 발길// 방과제에 철석이는 물결소리는/ 험벗은 山脈이 앙상히 비껴
간/ 저 가슴들에/ 어이 그리도 아프게 부딪더냐// 그 어텐가/ 異邦의 먼
海區 같은 항구/ 눈에 서른 旗幅이 펄럭이는/ 마스트 넘어/ 갈매기도 서
러어 올다가 떠났느냐// 뱃전에 처절석/ 파도의 몸부림// 오뇌와 변민이
뒤영켜 모대기는/ 부딪가에/ 해 저무는 夕陽녘엔/ 끝없이 想念을 되새기
는/ 버릇을 키워왔거니// 항구여/ 언제이더냐/ 수평선 넘어 깊은 海心에
서/ 일어난 海溢이/ 저 메마른 가슴들에/ 진정 환희의 물결로 차넘칠/
그날은.

- 경련, 「항구여!」 전문 (『한양』 63년 2월호, 126-127쪽.)

위 시에서 시적 화자는 항구에 머물러 있다. 항구는 그가 고향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자 고향에 절대 갈 수 없음을 확인하게 하는 이중적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에게 “뱃고동소리”는 “비명”처럼 들리며,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을 향한 열망은 “기진한듯 늘어져 누운 페브먼트”로 나타나고 있다. 마치 “파도의 몸부림”처럼 “오뇌와 변민이 뒤영켜 모대기는/ 부딪가”만이 자신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화자는 이곳에서 “진정 환희의 물결로 차넘칠/ 그날”을 염원하지만 그 시간은 아직 까마득히 멀게만 느껴진다. 즉 시인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 온 조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방의 땅에 머물러 있는 디아스포라 의식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다.

찬 바람 단간살이 뒷창에 울부짖고/ 함박눈은 침울한 거리에 휘날리네/
끝없는 타국살이 우수는 질어오고/ 고국 생각에 추위조차 곱절인데/ 그
마치 고단한 운명을 부르는 듯/ 기 나긴 뱃고동 소리 울러오네// 쪽잠결
에도 못 잊는 바다 저편 내 고향/ 오랜 세월 이별에도 오히려 생생한/
길 거리며 초막들 친지들의 얼굴이여.../ 이별의 날 걸음에 매달리던 마
음들/ 지금도 온 몸에 지지는 듯 뜨겁구나!// 고달피라 타국살이 참을
수 없어라/ 가난보다 더 못견딜 차디찬 멀시가/ 들데없는 이마음을 조

국에로 날리거나/ 흙이라도 고향의 흙 더욱더 그림구나// 언제면 거기
고향땅의 하늘 아래/ 능수버들 새봄 맞아 춤추는 날에/ 언제면 우리 모
두 한집에 모이려나/ 기다려 기다려 가고픈 고국이여
- 정영훈, 「언제면 언제면」 전문 (『한양』 1963년 4월호, 154쪽)

정영훈의 시편에서도 “끝없는 타국살이 우수”, “고국 생각”, “가고픈 고국이여” 등의 시구를 통해 시적 화자의 디아스포라적 비애를 강조하고 있다. 고국을 그리워하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단한 운명”이라 말하면서 언젠가 “우리 모두 한집에 모이”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아스포라로서의 자기 감상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애정,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타나면서 또한 조국의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염원을 보여주는 것으로 형상화 된다.

산도 들도 입을 봉하고/ 安息을 잃은 창천 아래/ 벗은채 저리 널려 있는
데// 아슬히 바닷쪽으로 기울어진/ 무연한 平野 한 끝으로/ 느릿느릿 江
물이 흘러간다/ 메마른 강기슭을 스치며 간다// 江물 속에 비낀/ 저것은
/ 濁流에 휩쓸려간 시뻘건 언덕/ 험벗은 山脈// 아아 마른 하늘 아래/
논바닥이 터지는 소리/ 가슴들이 터지는 소리// 어데로 가는 것이냐/ 三
南 千野 万谷을/ 구비도는 江물아// 너의 발길 스치는 언덕은/ 이리도
무천에 시달리고 있는데/ 너는 말 없이 흘러만 가느냐/ 바다로만-/ 바다
로만-// 쏟아져 나리는 불줄기에/ 타고 있는 땅덩이를/ 타고 있는 가슴
들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 정영훈, 「江邊斷想」 전문 (『한양』 63년 6월호, 140-141쪽)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시인의 자기 한탄은 고국의 정치적·경제적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고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위 시편과 같이, 농업의 특성 상 가뭄이나 홍수가 있게 되면 그 해 농사를 망칠 뿐만 아니라 당장의 끼니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될 정

도로 60년대 초반 한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다. 위 시편이 쓰여진 63년에는 2~3월에 걸쳐 대대적인 가뭄이 있었고, 특히 경남 지역의 가뭄 피해가 심해 보리수확이 줄었으며,¹⁹⁾ 부산·대구에서는 식수원의 확보조차 어려웠다.²⁰⁾

아마도 정영훈은 한국의 사정을 신문·잡지 등의 미디어를 통해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 같다.²¹⁾ 따라서 위 시편과 같이 한국의 가뭄상황을 걱정하는 시편을 재일한인의 시선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독특한 것은, 한국적 상황에 대해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경련이나 정영훈의 시편에는 그 원인에 대한 탐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시인이 자신의 디아스포라적 위치를 ‘운명’으로 생각했던 것만큼, 한국의 비극적 현실 또한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보다는 비극적 상황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련과 정영훈은 초기부터, 한국 근현대사의 수난당하는 민족의 이미지와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정신을 요청하는 시편을 주로 제출했다. 그러나 경련과 정영훈의 60년대 시편들에는 화자의 감상적 태도가 한국적 현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이나 비판을 훨씬 압도하고 있다.

모진 비바람 한몸에 받으며/ 피어난 한떨기 진달래/ 벼랑을 안고 천길
바다속에 떨어진다해도/ 바위위에 그 절개 붙붙는 마음이랍니다.// 밟히고
꺾기우면서도/ 백사장에 해당화 향기로우니/ 아! 입그려 그리워 애타
는/ 이내 마음 터질것만 같사외다// 내 사랑 입이여! 길이막혀 못오시나
이까/ 평평 내리고 쌓이는 눈속/ 석자세치 두꺼운 얼음밑에서도/ 간절함

19) 「慶南보리農事 大凶 우려」, 『경향신문』, 1963. 03.22, 6면.

20) 「釜山·大邱에 食水難 가뭄繼續돼 水原말라」, 『경향신문』 1963.03.20, 6면.

21) 『한양』 1974년 8·9월호에 게재된 정영훈의 시 「異變」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는 미군헬리콥터 한대가 비행금지구역인 청와대 주변으로 날아오자 저지사격을 가한 사실(「美軍 헬機 한대 不時着」, 『동아일보』, 1974.06.06, 7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여! 강물로 굽이치 니이다// 사나운 세파, 돌뿌리에 찢겨/ 산산이 부서지는 몸, 가슴풀어 헤치외다/ 창과위의 작은 물방울로 흩어지며/ 입을 불러 입의 모습 그려봅니다// 그대 만약 외로운 섬이라면/ 그대 곁을 감도는 금파로 일어/ 찰삭이며 찰삭이며 간지럽도록 애무하오리다/ 고독을 물리쳐 탕탕 지칠줄 몰으리다// 진달래 뒷산에 읊기고/ 해당화 뜰악에 가꿀/ 내 사랑 입이여! 언제 오시려나/ 부르다 부르다 지칠노래만이 애답사외다.

- 경련, 「사랑」 전문 (『한양』 62년 5월호, 145쪽)

조국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이 형상화 되어 있는 위 시편에서, 시인의 “조국 그려 타는 마음”은 낭만적 사랑의 대상인 “입”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시인의 열렬한 조국애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효과적이지만, 조국의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한 냉철한 시각을 갖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더욱이 ‘입’에 대한 그리움이 ‘기다림’이라는 태도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시인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쉽다.

이는 곧 1960년대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 재일한인들이 일정한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태도는 『한양』의 편집 방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양』은 재일 지식인 종합 교양 잡지로서 한국 현실에 처음부터 전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실제 양상을 살펴보면 그렇게 쉽게 확정지을 수 없다. 오히려 초기 『한양』은 정부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정책 조언자 내지는 동반자를 자처하는 성격을 가졌다.

『한양』 창간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우리의 過去를 알고 우리의 오늘을 알고 우리의 來日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나 自身을 알기 위해서이다. 조국을 알기 위해서이다. 雜誌「漢陽」은 讀者諸賢과 더불어 이를 위한 努力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祖國의 지난날을 도리켜보아 그것으로 앞길을 밝히는 등臺로 삼을 것이며, 祖

國의 江山을 돌아보아 우리의 生活을 設計할 것이며, 祖國의 現實을 살
펴 國家 百年大計을 이를 힘찬 再建에 이바지 할것이다.

- 「창간사」(『한양』 1962년 3월호, 9쪽)

『한양』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한국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적대감이 아니라 도리어 한국의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의 도약이었다. 『한양』은 초기부터 과도기로서의 군정을 긍정하고 그것을 혁명 과업의 완수 과정으로 여겼다. 『한양』의 초기 편집위원이었던 강태욱²²⁾은 창간호의 「軍政 民政」에서, “군사혁명에 성공한 박의장을 중심한 군부지도자들이 크나큰 야심을 가지고 병든 한국을 수술하는 길에 들어선 지 2년째 잡아든다. 그동안 혁명정부는 구악일소를 위하여 과감한 조치들을 취했고 팔목할만한 업적을 남기었으며 혁명제2단계의 목표로서 민심수습과 경제안정을 내걸고 현재 그를 추진시키는 도상에 있다.”²³⁾면서 군인들에 의한 정치를 제한적으로나마 지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정이 앞으로 한국의 정치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창간호의 속표지에 ‘혁명 공약’이 붙어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²⁴⁾ 편집 겸 발행인인 김인재도 「사회악과 죄의식」에서 “나는 5·16혁명후, 군사정부가 舊弊 舊惡을 일소를 지향하고 사회악 단속에 획기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초에 1만3천3백여명의 깡패와 강력범을 체포하여 그두목들을 군사혁명제

22) 창간호의 편집후기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편집후기 말미에 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태욱인 듯하다.

23) 강태욱, 「軍政 民政」, 『한양』 1963년 2월호, 10쪽.

24) ‘혁명공약’은 63년 12월호까지 게재되었고, 64년 1월호부터는 실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한양』이 64년부터 정부비판적인 잡지로 돌아섰던 것은 아니다. 비슷한 시기 국내의 『사상계』는 63년 2월호부터 혁명공약을 빼버림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공약 실천 불이행에 대한 실망을 예들려 표현했다. 그러나 『한양』지에 혁명공약이 빠진 것은 64년부터 박정희 정권이 제3공화국으로 정식 출범하여 더 이상 넣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지 정권에 대한 실망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다.

판에 회부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안도의 숨을 내쉴수 있었다. 군사정부가 이처럼 강패와 강력범을 대량 검거하고 사회풍기를 소란케하던 맨스꽝들에게까지도 경중을 올려준 것은 통쾌한 일이었다.”²⁵⁾고 쓰고 있다. 그것은 『한양』이 ‘민단’ 중심의 잡지²⁶⁾였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체제비판적인 성격을 강화했던 70년대 중·후반의 『한양』도 역시 ‘민단’ 중심이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문학에서도 초기 『한양』은 70년대 이후 보여주었던 현실참여적인 성격과는 달리, 순수 미학에 입각한 작품들도 게재되고 있었다. 비평의 경우, 장일우나 김순남의 비평 작업은 초기부터 참여문학론에 입각해 있었지만, 『한양』에 게재된 시편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순수 지향’ 시인들이 다수 눈에 띈다. 이는 문협 정통파와 친분이 컸던 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62년 9월호 서정주의 시 「漢陽好日」은 같은 호의 장일우의 비평 「여류신인의 詩原」의 뒤에 실려 있어 공교롭다. 왜냐하면 장일우는 이 비평문에서 서정주의 시세계를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씨의 시가 이미 독자들의 눈과 귀에 진력이 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시는 악을 찬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낡고 腐蝕한 『토속』의 냄새를 풍기고 있어 구역날 지경입니다. 그의 시집의 어느 한 시라도 좋고, 최근작 「봄치위」를 읽더라도 이 고약한 냄새는 그대로 풍기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지금 서씨의 시에서 떠나 간지가 이미 오래지 않을까요.”²⁷⁾ 이는 단순히 장일우가 『한양』의 시편 선별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초창기 『한양』이 참여문학론이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른바 ‘순수시’에 대해서도 다소 개방적이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25) 김인재, 「사회악과 죄의식」, 『한양』 1963년 2월호, 84쪽.

26) 이를테면, 『한양』에는 ‘韓國新聞’이라는 광고가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는데, 이 신문은 민단의 중앙총본부기관지였다. 그리고 매호마다 민단 소속 주요 재일인사나 관련 단체·기관 등을 소개하고 있다.

27) 장일우, 「여류신인의 詩原」, 『한양』 1962년 9월호, 135쪽.

초기 『한양』이 보여주는 현실 인식의 미흡함은 60년대 초 일본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이른바 ‘이소년사건’(동경 소공천사건)²⁸⁾에 대한 『한양』의 대응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일 지식인 잡지를 표방하고 있는 『한양』은 응당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양』에 실린 문학작품은 1963년 4월호에 게재된 이설주 시인의 「十三階段」이 유일하다.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一九六二年 十一月 十六日/ 아침 열 시 이날은/ 珍宇君이 죽음으로 가는 날!// 이슬에 젖은 한 조각의/ 生命을 움켜 쥐고/ 十三階段 앞에 서서 /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는 더 못 볼 風景을/ 눈이 아프도록 바라보던 窓 밖에서/ 아직 얼굴도 모르는 세상짜리 막내동생이/ 조개비 같은 하얀 손을 흔든다// 恩惠와 怨讎의 岐路에서/ 입도 귀도 못쓰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한 걸음 한 걸음 贖罪의 階段으로/ 거침없이 올라가는 어엿한 모습// 조선사람이기 때문에-/ 짓밟히운 人間의 尊嚴性을 위하여/ 너의 소위는/ 한 어린 少女에게 저지른 罪가 아니라/ 虐待와 侮蔑에 對한 보다 절실한 것이었다// 기도도 소용없는 地域에서/ 스물 둘의 꽃봉오리/ 너는 서러히 저가는구나/ 三十年 前에는 나도 <후테이센징>이였노라// 누가 운다더냐// 오끼나와에도 자와에도 그리고/ 저 無數한 孤島에/ 억울한 형제들이 잠들고 있느니// 흰 옷이라도 한벌 갈아 입고/ 얼룩진 눈길을/ 훌륭한 조선사람아!

- 이설주, 「十三階段」 전문 (『한양』 1963년 4월호, 156쪽)

이 시에서 시인은 이진우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가 사형집행을 당하게 된 근본 이유로 제일한인에 대한 일본의 “학대”와 “희멸”을 지적하고 있다. 시인 또한 “<후테이센징>”(불령선인)으로 지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멸시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며

28) 1958년 8월 17일 동경 코마츠가와 고등학교 여학생이 실종되고 8월 21일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9월 1일 제일한인 2세인 이진우가 범인으로 검거된 사건. 이진우는 당시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11월 16일 사형당한다.

정서적 동일시를 이루고 있다. 일본에 의해 “오키나와, 자와” 등에서 희생된 “억울한 형제들”과 “진우군”을 병치함으로써 일본의 한인 멸시를 에둘러 지적하고 있다.

이 시는 이진우의 죽음을 재일한인의 짓밟힌 삶의 한 단면으로 그리면서, 그의 죽음을 민족적인 숭고함을 지닌 것이 되게 한다. 그런데 재일한인의 죽음을 형상화 한 『한양』 게재 유일한 시편이 재일한인이 아닌, 한국 시인이 말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재일한인들에게 이진우는 외면하거나 적어도 대면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62년 12월호 『한양』의 편집후기는 ‘동경 소공천사건’에 대한 편집진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글이 실려 있다.

우리는 이제 李君의 죽음에 對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볼 餘地가 없겠는가. 그가 저지른 죄는 果然 엄청나고 무겁다. 그러나 이 끔찍스런 소위가 남달리 총명하고 섬세한 感情을 지닌 한 少年이 그가 단지 <第三國人>이란 理由로써 받아야 할 갖은 모멸과 差別과 虐待에 대한 하나의 反抗이었다면 그 죄의 밑뿌리는 더욱 깊은데 있지 않겠는가. 李君의 비참하고 신산많은 짧은 生涯엔 우리 在日僑胞二世의 宿命이 집약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굴레를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도 겨레가 한마음되어 福된 祖國 建設에 이바지 해야겠다.

- 「편집후기」 (『한양』 1962년 12월호, 192쪽)

이 글에서 이진우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 또한 한국인이 “<第三國人>”으로서 “갖은 모멸과 차별과 학대”를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편집후기의 필자는 “숙명”이라면서,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복된 조국 건설에 이바지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일한인이 일본인들에게 받는 핍박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깔려 있다. 일본인의 핍박이라는 “굴레를 하루속히 벗어나

기 위해서” 『한양』 편집진들은 일본에 대한 재일한인의 처우 개선이나 법적·제도적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조국 건설에 이바지” 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진우’를 다룬 김인재의 글 「그가 남긴 마지막 글월」(『한양』 1963년 5월호)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김인재는 이진우를 “한국사람이라는 自覺과 긍지를 안고”²⁹⁾ 죽음을 맞이한 민족적 인물로 내세우면서, 이진우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 “남의 수모를 받지 않고 우리겨레가 한 강토 한 집안에서 모두가 단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方途는 없는가.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³⁰⁾를 물으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진우를 “한 번도 사용할 수 없을지 모르는 한국어를, 그것도 죽음을 앞둔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발견한 어린 사형수의 모습”으로 부각시켜 “회복된 ‘국어’가 훼손될 수 없는 가치임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³¹⁾냄으로써 민족성을 자각한 인물로 내세우며 점점 잊혀져가는 민족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재일한인사회에 당면한 재일한인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한인이 멸시당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태도를 단지 김인재, 나아가 『한양』 편집진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각은 재일한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중구속의 처지를 간명하게 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진우는 일본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낳은 ‘괴물’로서, 그에 대한 긍정은 일본땅에 살고 있는 재일한인들의 물질 토대인 일본에 대한 부정이 되고, 그에 대한 부정은 재일한인의 정신적 토대인 민족적 정체성의 부정이 되는 모순을 야기한다. 이진우를

29) 김인재, 「그가 남긴 마지막 글월」, 『한양』 1963년 5월호, 71쪽.

30) 위의 글, 71쪽.

31) 이재봉, 「국어와 일본어의 틈새, 재일 한인 문학의 자리 -『漢陽』, 『三千里』, 『靑丘』의 이중 언어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7집, 2007.12, 174-175쪽.

언급하되, 일본을 전면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이를 “숙명”으로 치부하면서, 대신 미래에 돌아가야 할 민족의 영토를 상상함으로써 논리적 곤경으로부터 벗어나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 내 재일한인의 현실적인 삶을 전면화하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난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한양』이 재일 지식인 잡지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처지를 몇몇이 밝히지 않고 있거나³²⁾ 재일한인들의 삶보다는 한국의 현실에 주목, 개선 방향이나 비판을 수행하는 데 전념한 것은 이와 같은 재일한인들의 이중구속의 논리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³⁾

이는 경련이나 정영훈의 시편들의 내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련과 정영훈의 시편에는 신산스러운 일본 내에서의 삶이 단편적으로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처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본 내 한인들이 일본을 향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대신 그들의 시편에는 한국의 경제적 발전

32) 1962년 4월호에 게재된 좌담회 「민족문화와 문화유산」에는 강태욱을 사회자로 하여 민족과 문화에 대한 폭넓은 대담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좌담회 참석자인 이흥식(고려대 교수, 한일회담대표 문화재위원), 황수영(동국대 교수), 조순승(고려대 부교수)의 개별 사진은 실려 있지만 정작 사회자이자 당시 『한양』 편집위원이었던 강태욱의 개별 사진은 없다. 더욱이 좌담회 단체사진에도 강태욱의 뒷모습만 어색하게 촬영되어 있다. 게다가 『한양』은 창간호에서부터 일관되게 편집위원을 비롯한 편집진의 명단을 공개한 적이 없었고, 편집진의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권두언’이나 ‘편집후기’를 누가 썼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게재된 글들의 필자조차 이름만 나와 있을 뿐 필자의 소재를 짐작할만한 소속이나 직업 등을 병기하지 않고 있다. 『한양』은 초기에서부터 재일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검열을 의식했기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33) 한승우는 『한양』이 “재일한국인이 만든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한양>에는 재일 동포들의 이야기가 첨예하게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편수 역시 많지가 않다”고 지적하고 그 원인 중 한 가지로 “재일 한국인들이 일본이라는 르상티망의 대상을 제거하기에는 무력하다는 패배감도 작용했다고 본다”고 지적한다.(한승우, 「<漢陽>誌에 드러난 在日지식인들의 문제의식 고찰」, 『어문논집』 제36집, 2007, 254-255쪽)

과 정치적 안정,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토대가 되는 ‘자유’를 한국에 요구하는 태도로 일관되어 있다. 비록 이러한 태도가 조국에 갈 수 없는 시인의 디아스포라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에 분명하다 할 지라도, 섬세한 생활감정을 가진 시인이 재일한인의 불안한 위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나 적어도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언급하는 데 그친다는 점은 매우 어색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어색함이 재일한인들이 생산한 담론의 무의식적 기저를 이룬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그만큼 일본이라는 현실보다는 한국이라는 돌아가야 할 이상향에 재일한인들이 기투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이다.

2) 민족 동일성의 회복과 ‘자유’의 강조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통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한양』 편집진들이 토대로 삼았던 것은 민족의식의 회복이다. 민족적 동일성의 회복과 그를 통한 단결심 없이는 단기간에 한국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한양』 편집진들은 비록 고향 땅에 머물러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동질적인 ‘민족’을 상상하고 그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개선을 추구함으로써 언젠가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경련과 정영훈의 시편은 이와 같은 민족 동일성의 회복과 민족 번영에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옛城들에 푸르른 이끼는/ 밝히어 쓰러지고// 호젓하던 古宮의 밤이/ 醉氣에 소란하네// 太平聖代 부르던 가야금의/ 그 맑은 가락은/ 세월의 狂想曲에 찢기어 흩어지고// 버선발에 다홍치마 사랑이던/ 舞姬들의 장구춤은/ 恥心 잃은 裸婦들의 亂舞에 파묻혔네// 저 머얼리에서 일어난/ 거센 海風에/ 千年 번성던 무궁화도 모란도/ 모개미가 부러지고// 꽃잎에 쌍쌍 부닐어 사랑흡던/ 蜂蝶도/ 이제는 가뭇 없이/ 자취를 감추었네//

무너진 城址에 파묻혔어도/ 萬代를 간직한 자랑스런 說話는/ 설레어 뜨
거운 心境들에/ 琴線으로 울리는데……// 北岳의 山頂높이/ 匍匐해 오른
나그네/ 漢陽城 옛자취를 더듬어// 久遠토록 滅할 수 없는/ 민족의 불타
는 鬚을 부른다

- 정영훈, 「漢陽賦」 전문 (『한양』 1963년 2월호, 130-131쪽)

위 시에서 시인은 “민족의 불타는 鬚을 부”르면서 먼 옛날의 “태평성
대”를 다시 떠올린다. 아름다웠던 “한양성 옛자취를 더듬어” 다시금 부
흥할 한국을 떠올릴 때 시인은 ‘민족’을 호출한다.

그런데 이 시에서 ‘민족’의 기표는 온통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이미지
들과 연결되어 있다. 고전문학의 양식인 ‘賦’를 내세우고 있는 것뿐만 아
니라 “고궁”, “가야금”, “버선발”, “다홍치마”, “장구”와 같은 전통적 이
미지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망해버린 도성에서 서성이는 나그네의 우수’
와 같은 고전시가에서 흔히 차용되던 시적 정황을 그리고 있다. 즉 시인
에게 민족은 전근대적이고 전통적인 소재나 이미지, 정황을 마련함으로
써 구체화된다.

경련의 시편에서도 ‘민족=전통’의 등식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吐含山 골골마다 달빛이 긴 치마를 입고 스쳐가면/ 열 두마을의 머릿채
늘씬한 신라 처녀들/ 울울이 비단실 자아내어 울울이 사랑을 엮어내어/
꽃무늬 구름무늬 사이사이에/ 따사로운 입김으로 노래를 불어넣어/ 푸
른 달빛이 오히려 시새울/ 그 비단 땅 위에 고이 깔아두고/ 無窮永世에
복을 빌었다는데/ 『아소! 이 나라 길이 빛나옵소』/ 會蘇曲 합창소리 강
물같이 맑았다는데// 큰 말 타고 번쩍이는 전통에 鵬새 깃은 머리에 꽃
고/ 軒昂한 화랑 사나이들 선뜻 射場에 나서/ 호연히 웃고 하늘 우러러
키자랑을 하며/ 시위에 화살을 걸면 두팔 사이 넓어진 가슴 속에/ 臨戰
無退의 붉은 충성이 햇불로 타올라/ 百發百中の 과녁을 뚫던 화살/ 百
發百中の 外敵을 내몬 화살/ 그 화살 만든 푸른 대는/ 상기도 산마다 마
을마다 千年이 물흐르듯 흘러가도/ 봄이면 그 뿌리에서 筍이 솟는데/
傲霜孤節이 그날처럼 푸르는데// 쩌렁쩌렁 산을 울리며 정끝에 이는 돌

먼지를 불며불며/ 皇龍寺 佛國寺의 석축을 놓고/ 多寶塔 蓮花塔 꽃을
 피우고/ 石窟庵 깊숙히 입을 모셔 두고/ 日月星辰이 무궁히 돌고돌아/
 이 땅에 내릴 은혜며 재난을/ 골고루 알아낼 瞻星臺를 쌓을릴 제/ 겨레
 의 님이 地脈으로 永遠토록/ 돌중에도 굳고굳은 花崗巖을 고른 石工의
 그 마음/ 돌들은 알아/ 風雨千劫에 변함 없이 서 있는데// 옥통소 소리
 높이 울면/ 千里海岸에 물결은 구슬이 되고/ 진달래 망울져 피어날 때
 부터/ 발갈이 노래가 들판에 덮었는데// 太子! 땅을 치며 痛哭하여/ 피
 섞인 눈물로 關門을 적서 두고/ 三冬 추위에도 萬疊靑山에서 삼베로 몸
 가림이/ 오히려 罪스러워/ 『나라 지키자』 『백성들을 건지자』고/ 泣血鳥
 되어 가지마다 옮겨 앉아 울었다는데// 아아 徐羅伐 千年!/ 그 슬기 그
 자랑은 어디 있느냐?/ 그 날의 별들은 어디 있느냐?/ 아버지 심장에서
 전하고 전해 내린/ 民族의 血管속을 달리거나/ 우리 어이 追憶만을 먹
 고 살라……// 어둡게 흐른 千年을 끝막을/ 밝은 千年의 대결이 와야 하
 리/ 地軸이 흔들리던 恍惚한 徐羅伐의/ 오늘이 있어야 하리!

- 「서라벌 千年」 전문 (『한양』 63년 11월호, 126-127쪽)

이 시에서 “서라벌”은 단순한 천년 고도가 아니라 민족 정신을 양양하
 고 그 정기를 이어 내려오게 한 환상적이면서도 신성한 공간이다. 그곳
 에는 나라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나라를 지킬
 힘을 기르는 “화랑”이 있었으며, 우국충정에 불타 “겨레의 님이 지맥으
 로 영원토록” 희구하는 “석공”이 있었다. 심지어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太子”마저도 국가를 수호하고 백성들을 보살피야 한다는 데 아무런 의
 심을 갖지 않았다.

시인에게 천 년 전 과거는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되살려야 할 민족 정
 기의 시원이고, 서라벌은 그 구심이었다. 과거의 것으로부터 민족과 민
 족성을 발견해내려는 시인, 나아가 『한양』의 편집 방향이 여기서도 확인
 된다.

민족을 전통적인 것과의 연관 하에서 발견하려는 경련과 정영훈 시의
 민족주의적인 토대는 『한양』 편집진들이 초기에서부터 일관되어 온 태
 도이다. 『한양』은 민족과 민족성의 발견을 위해 초기부터 꾸준히 한국적

이고 전통적인 것을 소개해왔다. 이를테면, 이 시가 실린 63년 2월호만 살펴보아도 ‘명승고적순례’, ‘야담’, ‘전설’, ‘한국의 세·시·풍속’, ‘한국인 물열전’과 같은 꼭지가 있으며 「고려청자와 인쇄문화」, 「고구려 고분 이야기」 등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소재를 소개하는 데 주력하여 잡지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잡지의 주요 독자인 재일한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이러한 꼭지들은 많은 인기를 끌었다.³⁴⁾ 특히 민족을 부재하는 당위가 아닌, 지금 여기에 되새겨야 할 현실로 바라보았던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민족은 의심과 회의의 대상이기보다는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써 작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전통을 통한 민족의 발견과 재구성은 경련의 시편이 표상하는 시간 인식이 잘 보여주고 있듯, ‘과거의 영광 - 현재의 절망 - 미래의 희망’으로 요약되는 거대한 서사를 구축하고 그 주체로서 민족의 능동성을 강조하게 하여, 민족의 단합과 협동만이 미래의 희망을 꽃 피울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음을 매끄러운 논리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순남이 「민족의 주체적 반성 -한 국문학도의 변-」³⁵⁾에서, “확실히

34) 62년 7월호 ‘讀者의 便紙’에 ‘大阪·許龍文’독자는 「『漢陽』을 벗삼아」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名産이며 한국人物列傳 名勝古蹟巡禮 그리고 그윽한 隨筆과 詩創作 등 나의 性味에 알맞게 좋고 읽음직하여 商都의 나그네 마음도 푸근해짐을 느낀다.”(188쪽)고 쓰고 있다. 62년 12월호 ‘편집자예의 편지’에는 「현대인의 심금 울리다」라는 제목으로 ‘서울·박충홍’ 독자가 쓴 편지에는 “민족문화의 요람을 소개하는 선인전 명승고적유례 민요 및 전설등등 현대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많은 역사적 교훈”(191쪽)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이는 편집진들의 의도와도 일치하는데, 62년 3월호(창간호) ‘편집후기’에는 “4월호부터는 史傳을 씨리-스로서 소개키로 하였습니다. 史實에 의하여 선각들의 위업을 더듬어보는 것은 결코 부질없는 감상적인 회고취미에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불의와 무기력과 이기주의가 잡초처럼 뿌리깊이 깃들여 있는 우려되는 현실에 비추어 그들과 같은 애국의 至情과 기백이 요청되며 또한 그를 본받자 함에 에서입니다.”(196쪽)라면서 꼭지를 만든 이유를 쓰고 있다. 전통담론과 민족의 발견으로 요약될만한 이와 같은 민족 표상의 역사적 흔적 찾기는 75년 6·7월호 ‘史話’ 꼭지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늘의 한국문학은 「자기」를 지니고 있지 못하며 전통의 모태와 연줄을 끊어버리고 민족성을 구현하지 못함으로써 타율적이며 非理적 경지에서 오뇌하고 있다.”(140쪽)고 쓰고 있거나 “양담배와 커피와 스-프에 맛들이다 보니 우리의 황색연초와 송늬와 된장국의 진미를 몰라보듯 문학의 참다운 전통을 분간 못하는 감각기관의 소유자들이 평음을 울리고 있다. (중략) 사대주의와 依他정신이 한국의 과거며 전통이라는 사이버 전통 문학자도 있다. 자기상실의 극치다.”(142쪽)라고 비판한 맥락도 여기에 있다. 민족과 전통에 대한 강조는 필연적으로 서구 문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조국의 문화 현실에 대한 저항감을 노출하게 된다.

요새와서 무턱대고 외국 본따기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기괴망칙한 옷들을 입고 거리에 나타남을 보게된다. 속옷인지 겉옷인지 자리옷인지 나드리옷인지 모를 옷들 무슨 式이니 무슨식이니 해서 총집같은 홀태바지가 썩충썩충 뛰어다니는가 하면 그 色調가 얼송덜송 야단스러운 빛깔이어서 무늬가 사람들을 威脅이나 하는 듯 구역이나게 하는것도 많다.

또한 유난히 아름다운 우리한국 여성들의 의상이었지마는 괴상스러운 차림이 대조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자못 불쾌하게도 한다.

의젓하면서도 요조하고 명랑하면서도 점잔하고 화려하면서도 수수한 우리 한국민들의 정취를 어디다 팽개치고 스카트자락은 허벅다리애까지 기어오르고 육체미를 자랑하는 듯 앞가슴을 내흔드는 해괴망칙한 차림차리가 거리에 범람하고 있다.

- 박원석, 「한국의상에 대한 단상」 (『한양』 1962년 6월호, 46-47쪽)

이 글에서 박원석은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미의식과 다른 서구 문화에 영향을 받은 옷차림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옷차림만이 아니라 생활 양식 전반에 걸친 문제의식이다. 『한양』 창간호부터 연재되었던 만화 「곽수동방랑기」는 태백산 깊은 산속에 파묻혀 수십 년을 잠으로 세월을 보낸 곽수동이라는 인물이 서구화되어가는 한국의 풍

35) 김순남, 「민족의 주체적 반성 -한 국문학도의 변-」, 『한양』 1962년 4월호.

속과 세태를 비판, 풍자하는 작품이다. 구세대 남성의 신세대 풍속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곧 『한양』 편집진들이 보여주는 문화적 경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표지이다.

전통담론과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경향은 재일한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한국 근대화의 구심점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담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리하여 민족이라는 집단 단일체의 개념은, 아래와 같은 시편을 생산하게 했다.

눈보라가/ 순경의 방맹이처럼/ 꺾뿌리를 후려치고 가는 밤/ 돌이는 오돌
오돌 떨면서/ 낮익은 쓰레기통 곁에서/ 어느 집 창안을 들여다 보았다//
상기 별도 잠자고 있는/ 이른 새벽인데도/ 아이 어른들이 새 옷을 갈아
입고/ 무언지 맛있는 것을 지지고 볶았다// 「설날」이라고 하였다/ 그런
데 돌이는/ 「설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새 날이 밝으면 몇살이
되는지/ 그것조차 알 길이 없다// (중략) // 밝아오는 창 아래서/ 축배를
드는 사람들아/ 그대의 혈관에 배달의 피가 흐르거든/ 잠깐 마시기를
멈추라/ 이 아침에 생각해 볼 일이 있다// 두 줄기 눈물이/ 저 아이의
온 뺨을 적시기 전에/ 모진 추위가/ 저 아이의 심장까지 스며들기 전에/
똑똑히 일러 주어야 한다/ 어떻게 설날의 기쁨을 찾아올 것인가를-

- 경련, 「새해」 부분 (『한양』 64년 1월호, 147쪽)

이 시는 고아인 “돌이”의 험벗고 굶주린 비참한 모습을 형상화 함으로써, 민족의 비애를 확인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시인은 “이 아침에 생각해 볼 일이 있다”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그것만이 민족의 비애를 끝낼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을 이끌 수 있다고 본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같은 민족 구성원 간에 상호호혜의 태도를 나타나게 하며 따라서 ‘돌이’와 같은 험벗고 굶주린 민중들의 아픔을 보살피 주는 도덕적 인물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관념으로서의 민족에 압도된 경련 시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한양』 편집진들의 민족에 대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

는 한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민족의 동질성 확보는 민족 중심의 국가 건설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려는 한국에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은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민족적 정체성의 강조는 민족의 자주적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양』 편집인 김인재가 제3공화국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 중 하나로 사대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쓰고 있는 다음 글에서 그 예를 살펴볼 수 있다.

내셔널리즘-이것은 물론 民主主義를 排除하는 것이 아니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아니다! 내셔널리즘이 없는 民主主義, 그것을 배제하는 民主主義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이며 그것은 곧 民族國家의 獨立을 떠난 그 어떤 허공에 뜬 民主主義의 무지개를 꿈꾸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중략) 내셔널리즘은 그 自體가 反抗의 概念이며 抵抗의 概念이다. 事大와 外勢를 反對하는 強力한 民族的 「에고이즘」의 立場은 生을 爲한 民族의 再生을 위한 正當防衛的 抵抗이다.

- 김인재, 「정치인의 윤리」 (『한양』 64년 1월호, 26쪽)

이 글에서 김인재는 내셔널리즘을 “사대와 외세를 반대하는 강력한 민족적 「에고이즘」의 입장”으로 옹호하면서 민족주의가 “민족의 재생을 위한 정당방위적 저항이다”라고 주장한다. 민족주의의 저항적 태도는 곧 민족 자결권(“민족국가의 독립”)을 획득하게 하는 근거가 되며, 그러한 토대에서 “민주주의”는 수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족주의의 이와 같은 강조에서 필연적으로 ‘자유’에 대한 의지를 도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너는 살아 왔다-/ 땅을 치며 大哭한 乙巳年과 함께/ 祖國의 怨讎 向해
자리차고 일어섰던/ 우리 할아버지의 곳곳이 세운 수염과/ 火繩銃과, 鎗
신 감발과/ 그리고, 이마에 질끈 동여맨 무명수건과 함께.// (중략) // 너
는 살아 있다-/ 눈을 막는 催淚彈, 살은 찢는 鐵條網, 불을 뿜던 銃彈을

알가슴으로 무찌른/ 四月의 거리 거리에서/ 피를 나눈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낳은 어버이들과 함께// 自由여! 尊嚴한 우리 겨레들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살아 온/ 不死身の 네 이름,/ 네 이름을 부르노라!
소리 높이 부르노라!

- 정영훈, 「자유」 전문 (『한양』 1964년 3월호, 228쪽)

정영훈의 위 시편에서 ‘자유’는 민중들의 역사에서 오롯이 살아 숨쉬는 저항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을사년에서부터 1960년 4·19혁명에 이르기까지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삶은 폭압적 정치 현실에 대한 저항감을 고취시켰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 자유는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뿐, 개인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되레 개인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민족을 위해 기꺼이 “알가슴”을 던지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질 때, 진정한 자유주의자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유와 개인주의가 결별하는 한국식 ‘자유’ 담론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민족적 전체성에 근거하여 개인의 강한 의지와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우리는 불같이 사랑해야겠다// 집채같은 바위가 상기 밤자같이었던/ 아슬히 머인 옛날로부터 흰옷 입고/ 이땅을 매 가꾸신 착한 할아버지들이
노을처럼 붉은 가슴속에/ 서로 살뜰한 사랑을 품어 사랑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에 태어나신 다시 뜨거운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 한 줄기 汪洋
한 강물과 같이 이렇게 뻗어내린 겨레다// 우리는 불같이 사랑해야겠다//
천에 천가닥 만에도 억만가닥 영키고/ 서러 넘쳐 흐르던 핏줄의
한中間이 무참히 끊겨/ 千劫地脈의 아픈 몸부림과 암담한 氣流의 뒤설
레이속에/ 季節은 意味를 잃고 血肉의 아우성이 메아리로 일어도/ 심원의
나라는 炎炎히 타올라 서로 부르는 소리 하늘에 비끼며/ 기어코 오
고야말 겨레의 한時刻을/ 焦燥와 渴望속에 앞당기고 있다// 우리는 불
같이 사랑해야겠다// 蛇類의 헛바닥이 새파란 불을 뿜어/ 謀反과 離間
이 바위를 깨뜨리고/ 純白한 言語는 공포에 질리고 노래는 모두 가서

오지않고/ 보고 듣는 것이 苛刑의 대상이 될지라도/ 來日이 오늘처럼
슬프지는 말아야 하겠기에/ 제가 저를 찾는 간절한 마음은 끊고 있으나/
피를 나눈 살붙이가 異邦人일 수는 없다/ 하늘 땅이 변한대도 사랑을
미움으로 바꿀 수는 없다.// 우리는 불같이 사랑해야겠다.

- 정영훈, 「熱願」 전문 (『한양』 1963년 7월호, 143-144쪽)

조국과 민족을 “불같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내일이 오늘처럼 슬프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개인의 개별성을 옹호하기보다는 민족적 정체성을 구심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정영훈의 몇 안 되는 평론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詩人の 얼굴 -韓國詩의 可能性에 대한 小考-」³⁶⁾에서 정영훈은 서정주의 시를 비판하면서 “본질에 있어서는 생활에서의 도피와 함께 이른바 「現代詩」의 추세에 편승해야 하겠다는 事大근성과 便宜主義·揚名思想이 아울러 놓여 있다”(110쪽)고 진단하고 “民族의 精神的 핏줄을 이어가고 民族의 가락을 새로운 時代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詩人들의 얼굴”(114쪽)을 한국시단에 주문한다. 민족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민족의 고통과 대면하면서 이를 주체적인 시작(詩作) 행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와 같은 주장은 시의 창작방법론 또한 개인의 감정과 개성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민족이라는 전체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강난 오랜 세월/ 隔江이 萬里/ 낭끝에 고생살이/ 同族愛만 타끓었다.//
異邦의 손에 血肉을 찢긴 아픔/ 설움은 흘러 강을 이루고/ 그리움 쌓여
솟은 뼚 위에/ 북을 향하여 울음 삼켰다.// 이제는 추억도 희미하구나/
눈물 속에 웃고간 님의 얼굴/ 거울에 조용히 비치는 백발에/ 세월의 달
리는 무정한 소리// 나날이 불속같은 고통의 季節/ 스물 여덟해를 어찌
견뎌 왔던고/ 님의 얼굴, 형제의 얼굴을 다오!/ 삶을 안아 볼 햇살을 다

36) 정영훈, 「詩人の 얼굴 -韓國詩의 可能性에 대한 小考-」, 『한양』 1969년 8·9월호.

오!// 끊어진 강토의 상처 위에/ 나는 차라리 남북을 잇는 다리/ 나를 딛고/
세차게 밟고 넘어/ 오천만이며, 안고 울며 웃어라!

- 정영훈, 「渴望」 전문 (『한양』 1973년 6·7월호, 86쪽)

‘자유’의 개념을 개인보다는 민족적 범주 안에서 담론화하는 이러한 양상은 개인의 희생을 통해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정영훈의 위 시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통일이야말로 실항민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유, “그리움”과 “설움”을 끊고 “오천만이” “안고 울며 웃”을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주는 까닭이다.

이러한 ‘자유’ 개념은 5·16군사쿠데타 이후 ‘사회정화’와 ‘퇴폐일소’를 이유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억압³⁷⁾한 것을 『한양』 편집진들이 긍정했던 데서 이미 예견되었던 사실이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자유’가 ‘반공주의’와 결합하면서 공산주의와 대척하는 상징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한양』 편집진들에게 ‘자유’는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민족의 ‘자주’에 근거한 외세 개입 반대(특히 미국), 자주적 통일을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1960년대 중반 한·일 양국간에 가장 주요한 이슈였던 한일회담에 대해 『한양』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시편을 제출했어야 했을 것이다. 한일회담은 박정희정권에 대해 당대 지식인들이 기대했던 ‘자주’적 태도인 ‘한국적 민주주의’가 실은 환상에 불과한 것임을 결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60년대 중반의 『한양』은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부분적으로 나타내거나 일본의 교활한 태도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한국 정부를 전면 비판하는 내용은 찾기가 어렵다.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은 7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의 실정을 정리하면서 ‘한일회담’에 임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서술할 때에야 전면적으로 나타난다.

37) 김건우, 「1964년의 담론 지형」, 『대중서사연구』 제22호, 2009.12, 75쪽.

이는 박정희정권이 반공주의에 기반한 민족주의 노선을 지배이데올로기로 노골화하게 되자, 『한양』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뚜렷이 나타내면서 시작된다. 특히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와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을 전후하여 그 양상은 확고해진다.

조롱 속의 새는 날아도 슬프다/ 조롱 속의 새는 먹어도 슬프다// 어항 속의 고기는 헤어도 슬프다/ 어항 속의 고기는 먹어도 슬프다// 자기의 하늘을 잃어버린 새-/ 자기의 바다를 빼앗긴 고기-// 슬픔은 차서 해일처럼 넘치고/ 인내의 도화선은 끊어지리라!

- 경련, 슬픈 「自由」 전문 (『한양』 1977년 4·5월호, 111쪽)

경련은 위 시편에서 한국에서 민중들의 ‘자유’란 그저 “조롱 속의 새”, “어항 속의 고기”와 같은 것일 뿐임을 지적하고 있다. 1970년대 중·후반 한국의 상황은 “자기의 하늘을 잃어버린 새”나 “자기의 바다를 빼앗긴 고기”와 다를 바 없이, 외세(특히 미국)의 개입에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인은 외세와 결탁한 한국 정부의 부패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즉 민족의 자주)가 추구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를 잃은 슬픔은 민중들에게 비애와 절망, 체념어린 태도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민중들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해일처럼 넘”쳐 일어서게 하여 부패한 정권을 타도할 것이라고 시인은 주장한다.

문인간첩단사건 이후 한국의 유력한 정·재·문화계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끊어지고 『한양』의 한국 반입이 금지되면서, 『한양』의 편집 기조는 박정희 정권을 ‘파쇼군부독재’로 규정하며 맹렬히 공격한다. 『한양』이 보여준 민족의 발전과 자주성의 촉구는 70년대 초반까지 당위적이고 담론적인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었다면, 7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서부터는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고, 민중 혁명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는데, 정영훈과 경련의 시편이 다루고 있

는 ‘자유’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3) 혁명적 로맨티시즘과 적대적 타자 비판

1960년 4·19혁명은 1960년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담론 지형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한양』은 4·19혁명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혁명 정신을 계승해야 할 과업으로 초기부터 설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양』은 4·19혁명을 편집 방향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4·19혁명에 관한 담론은 22년 동안 잡지가 이어지면서 다소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한양』의 편집 방향이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날 광장은 젊은 수호신들의 집이었다// 그 무슨 폭풍을 앞둔 저물녘의 바다같은 광장- 광장 위에 마구 쏟아져 내리던 사월의 양광 자유의 환성/ 먼데서는 어린 갈매기의 피문은 울부짖음을 안고 자꾸만 파도가 설레이고// 광장은 눈매 서늘러운 젊은 수호신들을 제 품에 안고/ 남 다자는 야반에도 황황히 불타는 눈을 뜬채 환희의 옷자락으로 아들들을 휘감았다// 어머니!/ 광장- 그 무엇인가 모성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이곳에서/ 젊은 아들들은 어머니의 순결한 젖가슴을 지켜 저 차거운 돌바닥에 겹겹히 입 맞추고// 혹은 휘몰아치는 우뢰를 안고 달려온 용감한 아들들의 더운 가슴 쓸어안으며 요요히 빛나는 영겁의 광휘 속에/ 새 탄생을 고하는 광장의 울부짖음 사월의 꽃보라/ 바다여!// 돌아오는 사월이여 무엇을 가져왔느냐?/ 새 날 새 태양을 갈구하여/ 아낌없이 쏟은 아들들의 성스러운 협조/ 그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이 광장 한복판을 솟한 군상들이 오늘도 어지러이 활보하고// 아하/ 바다여. 바다여. 설레는 바다여./ 눈을 뜨면 어제와 같은 잡담/ 아직도 분무 속에 가리운 태양/ 우리의 태양이여// 사월의 아들들은 어머니를 생각한다// 보라. 이 광장은 영원히 젊은 수호신들의 집이다.

- 정영훈, 「사월의 광장」 전문 (『한양』 1962년 4월호, 149쪽)

『한양』에 게재된 정영훈의 첫 번째 시 『사월의 광장』은 4·19혁명에

대한 60년대 『한양』 편집진의 시각을 미학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 시는 4·19혁명의 주체세력을 “아들”로 설정하고 혁명 염원이 가 닿고자 하는 대상으로 “어머니”를 호명하여 혁명 의지의 당위성과 분위기를 내세우고 있다.

혁명 담론에 ‘모성’을 개입시키는 미학적 형상화 방식은 경련의 시편 「그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사시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사시나?// 열한해 전 그해 四月의 廣場에서/
자유의 鐘을 亂打하며 달려가던/ 아들이 피흘려 쓰러졌을제/ 「내 아들
내봐라!」 부르짖으며/ 항쟁의 거리를 달려가던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
는 지금 어떻게 사시나?// 불꽃 튀던 六·三의 거리에서/ 또 바리케이트
에 뒤덮혔던 八月의 거리에서/ 싸우는 청년학도들의 얼굴 속에/ 자기의
아들을 찾아본 기쁨에/ 「내가 김중배의 어머니다!」 외치며/ 백발을 날리
면서 거리에 나섰던// 그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사시나?// 우악스런 무
리들이 사정없이/ 그 늙은 가슴을 함부로 짓밟고/ 그 여윈 두 팔을 비틀
어도/ 아들이 남긴 뜻이 너무도 소중한/ 해마다 봄마다 거리에 나서 외
치던// 그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사시나?// 못견디게 아들이 그리울 때
면/ 대문 밖에 나서서 거리를 내다보던/ 그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사시
나?/ 잠잠한 沈黙의 거리에서도/ 아들의 힘찬 목소리를 들으며/ 다가오
는 올해 四月을……/ 그 어머니가 저렇게 달려오고 있구나/ 저렇게 외
치며 달려오고 있구나…….

- 경련, 「그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사시나?」 전문 (『한양』 1972년
6·7월호, 106쪽)

1960년 4월 혁명 때 자식을 잃고 “항쟁의 거리를 달려가던 그 어머니”와 한일회담 반대투쟁 당시 “백발을 날리면서 거리에 나섰던” 어머니는 군부독재의 “우악스런 무리들”에 맞서 “해마다 봄마다 거리에 나서 외치던” 민중의 형상이자 투쟁의 과정에서 희생된 자식을 둔 부모를 대표한다. 또한 진정한 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민중 주체들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머니”라는 기표는 누이-소녀 등과 같은 여성성의 다른 기표들로 변주되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정영훈의 아래 시편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오랫동안 잘못 살았다……/ 인생이란 것, 영예라는 것, 그리고 생명과 시간의 영생을 도무지 믿지 않아/ 레페의 강기슭 낙조를 데불고 오늘을 실존했다// 내가 입고 다닌 메피스트 웨레스의 긴 회색 외투들/ 그리고 내가 살은 벽과 같은 세월/ 스물도 넘고 서른도 넘은// 호곡하옵니다/ 나를 낳아 주신 어머니이시여, / 뜨거운 여름볕에 나를 업고 다는 누님이시여// 내 어릴적에 함께 놀던 쪼그만 나비 새끼들은? / 꽃같은 외씨 버선들과 오작교는? / 춘향이는 어디로 갔읍니까? / 임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어머니/ 어찌하여 나는 당신이 들려주시던 자장가의 마디도/ 알아 들을 수 없게 되었는지요?// 누님/ 어찌하여 나는 당신들을 떠나 이리도 먼 불모의 변방에/ 왔는지요?// 나는 뉘집의 아들이었읍니까? / 나는 뉘집의 동생이었읍니까 / 나는 어찌 나라 탕생이었읍니까/ 족보도 없어 방황한 긴 여정/ 바람같은 세월과 함께 퇴색한 나의 외투 자락이여// 아하, 오열하옵니다/ 내 눈망을 속에 이제 사 밝은 것이/ 해와 같은 것이 차고 넘치는 이 날에/ 내 핏줄 속에 내 고향 산천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어머니이시여/ 나는 당신의 아들이옵니다/ 누님이시여/ 나는 당신의 동생이옵니다// 나는 이제사 돌아 왔읍니다/ 내가 여기 왔읍니다/ 푸른 군복 입은 먼 이 방인들이 흙문은 발로 / 짓밟았던 고향 땅 등에 입 맞춥니다/ 입 맞춥니다// 내 동생들이 같이 나는 피로써 열어준 四월의 광장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 광장이, 이 심원이 노호하며 내 핏줄 속에 돌려 준 것/ 오호, 나의 청춘, 나의 영예, 나의 영생이여/ 다시는 내 고향 땅을 떠나지 않으리라// 싸움으로 불같은 싸움으로 나도 이 광장을 지켜가리라/ 어머니이시여/ 누님이시여/ 피 묻은 나의 국토여/ 당신들의 아름 속에 영원히 나를 있게 해 주소서!

- 정영훈, 「『돌아온』 날」 전문 (『한양』 1962년 12월호, 140-142쪽)

정영훈의 이 시는 디아스포라 비애 의식을 혁명 의지로 극복한다는 점에서 제일한인의 혁명 담론 변주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적 화자

는 “잘못 살았다”고 탄식하면서 “벽과 같은 세월”을 “호곡”하지만, 상상 속에서나마 “고향 땅 등에 입 맞”추고 “이 광장을 지켜가리라”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비애를 극복하고 있다. 시적 화자의 비애를 의지적 태도로 변전시키는 것은 “어머니”, “누님”을 호명하면서부터인데, 이러한 여성 이미지들은 화자를 통해 고국애와 혁명 의지를 드높이는 혁명적 로맨티시즘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 이미지들의 등장과 변주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반민주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타도 의지를 낭만적으로 전유하는 시적 전략과 상관된다. 정영훈의 「사월의 시」가 실린 같은 호에 장일우가 “한국의 오늘을 걱정하고 세속의 불의를 경계하며 장래를 회구하는 오늘의 리얼리스트 오늘의 로맨티스트도 나와야 할 것이 아닌가!”³⁸⁾라고 한국 시단에 일갈했던 태도와 동일한 것이다. 4·19혁명이 집권층의 하야를 이끌어 낸 로맨틱³⁹⁾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미완의 혁명이 이후 한국의 근대화와 정치적 안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한양』이 내세운 것 또한 혁명적 로맨티시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혁명 이후 한국의 상황은 『한양』 편집진들이 볼 때,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올바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38) 장일우, 「현대시의 음미 -그 난해성에 대한 일고찰-, 『한양』 1962년 4월호, 147쪽.

39) 『한양』 1962년 6월호에 실린 좌담회 「외국인 기자들이 본 한국」에서 일본 독서신문 기자 日野啓三은 “일본에 없고 한국에만 있는 단 하나의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기네들의 손으로 자기네 독재권력을 넘어 뜨렸다는 역사적인 경험이라고 생각...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어느 편이 과연 보람있는 일일까 하는 것을 겨뤄보았습니다. 매우 로맨틱합니다마는…….”이라 말한다. 재일한인들에게 “일본에 없고 한국에만 있는 단 하나의 것”인 혁명은 그들의 자부심을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혁명에 의해 독재정권을 타도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로맨틱”한 감성으로 수용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따라서 『한양』 소재 경련과 정영훈의 시편에서 흔히 등장하는 여성 기표들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 뿐만 아니라 재일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이미지로도 변주될 수 있었다. 나아가 혁명의 로맨티시즘을 강조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었다.

사·일구에 우리의 젊은 청년학도들이 총탄의 위협에도 굽히지 않고 깃뻛힌 민주주의를 찾기 위하여 꺾기했으니 이는 정히 우리민족의 핏줄에 정의감이 맥박치고 있음을 실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중략) 이정권은 전복되었으나 정치 경제 문화등 모든 부문에서 반혁명세력이 구축되고 진정한 민주화가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며 혁명의 열매를 詐取당하는 결과와 것잡을수없는 혼란, 그리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오늘의 새로운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사월 혁명이 남긴 교훈을 민주와 복지의 한국사회건설에 살려나가야 할것이다. 이것만이 사월용사들의 무덤앞에서 아름다운 찬사나 화려한 꽃을 장식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그들의 명복을 비는 것으로 될 것이다.

- 김인재, 「사·일구의 교훈 -그 이주년에 즈음하여-」 (『한양』, 1962년 4월호, 50-51쪽)

김인재가 4·19 혁명 2주년을 기리며 쓴 인용문에는 혁명 이후, 혁명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지 않고 되레 혁명 이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되돌아 간 것에 대한 비판과 탄식의 목소리가 실려 있다. 같은 맥락에서, 1962년 5월호에 실린 박영일의 소설 「길」은 내용상 4·19 후일담 소설이라 할 만한데, 이러한 당대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문희’는 4·19혁명 때 학생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 교원에 대한 배척운동을 벌였다가 다른 선생과 간통했다는 누명을 쓰고 퇴학 당한다. 문희의 어머니 ‘경숙’은 4·19를 긍정하나 딸 문희와 아들 ‘정국’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되었고, 아버지 ‘형구’는 젊은 시절 용기 있는 인물이었으나 지금은 딸이 자신의 위신을 망쳐버린 것에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소설은 4·19 이후에 본격화 된 친구세대의 갈등, 혁명의 미완결성을 한 가족의 분열과 갈등으로 표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혁명 이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고 “사월 혁명이 남긴 교훈을 민주와 복지의 한국사회건설에 살려나가야” 하는 혁명 정신의 계승 방법으로 『한양』 편집진들은 ‘로맨티시즘’을 회복해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

그때까지 無氣力·無氣魄하다고 나무람만 받던 青年學徒들이 이처럼 正義를 위하여 大衆적으로 이어설 줄이야 누구도 생각못했었다. 우리는 海外에 있으면서 우리의 民族正氣가 바로 젊은 青年學徒들의 血管속에 맥맥히 끓어 넘치고 있음을 보았을 때 참으로 感激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중략) 자유의 나무는 피를 要求하고 피를 土壤으로 하여 成長한다는 말도 있거니와 피의 싸움이 없이는 自由와 民主主義도 어떤 生活上權利도 얻을 수 없다. 또 이렇게 얻은 自由와 民主主義이어야 값 있는 것이다.

- 정영훈, 「四·一九」를 回想하여, (『한양』 1964년 4월호, 5-6쪽)

김인재, 나아가 『한양』 편집진들이 추구하는 ‘로맨티시즘’은 두 가지 방법론적 전제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혁명을 이끈 학생 세력, 즉 “젊은 청년학도”들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고 이를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끄는 정치적 운전을 이끌 세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다. 인용한 정영훈의 수필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이 발견되는데, 이는 60년대 초 한국 지성인들이 4·19 학생 세력에 대해 제한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과 어느 정도 대비된다.⁴⁰⁾ 경련 또한 시 「四月아!」(『한양』, 1963년 4월호)에서, 4월을 몹시

40) 4·19 혁명이 일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간된 『사상계』 1960년 6월호에는 ‘민중의승리’를 특집으로 내세우고, 4·19혁명의 성격과 의의, 이후의 한국사회의 방향에 대한 다채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혁명을 일으킨 학생 세력에 대하여, 논자들은 대체로 일관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좌담회 「노한 사자들의 증언」에서 서울대 양성철은 학생들이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 앓과 배움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고, 고려대 총장 유진오는 「폭풍을 뚫은 학생제공에게」에서 학생에 의한 정치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혁명의 결실을 위하여」에서 이범석은 혁명의 주도권이 학생이나 교수에게 있어야 하지만 정치가두에 나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혁명을 이끈 학생 세력을 긍정하면서도 학생들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기보다는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가,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논지를 보이고 있다.

기다리는 화자를 등장시키고 있다. 화자는 “너는 나에게/ 벗이란 얼마나 귀중한가를 배워주었고/ 너는 나에게/ 단결이란 얼마나 큰 힘인가를 가르쳐 주었”고 “또다시 네가 오면/ 내게 무엇인가를 속삭여 줄 것만 같구나/ 또다시 네가 오면/ 내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줄 것만 같구나”라고 생각한다. 4월은 “내가 왜 창자를 주리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꿈도 없이 걸어가야 하는지/ 너는 진정 나의 스승이 되어준 달”로서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고취시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양』은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바탕으로 혁명 주체 세력에 의한 정치 세력화, 4·19 혁명 주체 세력의 능동적인 정치 참여라는 맥락을 강조했다.

또 하나는 4·19 혁명 때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보여준 숭고한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양』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근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당위를 강조할 때마다 4·19 혁명 정신을 호출한다.

四·一九는 어김없이 한 獨裁者의 牙城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四·一九는 가슴아프게도 이 나라의 歷史를 바로잡지는 못하였다. 四·一九의 용사들은 틀림없이 나라의 楚石으로 땅속에 묻혔다. 그러나 그 楚石 위에는 자랑찬 건물 대신에 원한과 저주가 겹겹으로 堆積되어 있다. 그러면 四·一九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중략) 그것은 이땅의 義로운 젊은이들이 자신의 힘을 굳게 믿고 단결하여 일어선다면 능히 季節의 빛깔을 바꿀 수 있고 歷史의 狂亂을 돌릴 수도 있다는 확고한 信念을 안겨준 사실이다.

우리는 아직도 四·一九 용사들의 弔詞를 읊조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결코 不義를 埋葬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四·一九 용사들이 남긴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이 남긴 뜻을 심장 속에 키우면서 너무도 崎嶇한 十有餘年을 투쟁과 함께 걸어 왔다. 땅위엔 꽃이 만발하고 거리와 마을들엔 自由와 民主와 正義만이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피에 젖은 四月의 노래를 되새기는 것이다.

- 정영훈, 「四月의 詩」 (『한양』 1974년 4·5월호, 95-96쪽)

그런 점에서 『한양』이 매년 4월마다 4·19혁명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하면서, 혁명 정신의 의의를 강조⁴¹⁾한 것은 혁명 의지의 전유 방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경련과 정영훈은 4·19 혁명을 주제로 한 각각 9편과 13편의 문학작품을 20여 년에 걸쳐 게재하고 있는데⁴²⁾ 이를 통해 4·19 혁명 담론의 변화 양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
- 41) 1960년대, 매년 『한양』 4월호에 게재된 4·19 혁명 관련 글은 다음과 같다.
 1962년 4월호 : 「四·一九의 敎訓」(산문, 김인재), 「四월의 광장」(시, 정영훈)
 1963년 4월호 : 「招魂」(권두언, 글쓴이 미상), 「金朱烈君을 생각하며」(산문, 박원석) 「四月아!」(시, 경련)
 1964년 4월호 : 「四·一九를 回想하여」(산문, 정영훈), 「四月을 詩로서 노래하기에는 아직도」(시, 박두진), 「証言」(시, 이인석), 「四月은」(시, 박일동), 「廣場」(시, 박일동), 「四月은」(시, 김남석), 「四月의 노래」(시, 이우중), 「봄은 喪章을 달고」(시, 박정은), 「榮光은 젊은 獅子들에게 -한 詩人의 부끄러운 反省」(산문, 김용호), 「文學革新」(평론, 장백일), 「그날」(수필, 이현희)
 1965년 4월호 : 「四月의 榮光」(산문, 강영준), 「四·一九의 意義」(산문, 송건호), 「四月의 꽃과 피」(시, 박두진), 「사월」(시, 이원수), 「四月의 눈 -다시 四·一九에-」(시, 박정은), 「시대정신과 한국문학」(평론, 장일우), 「어이 잊힐 그날인가」(수필, 김우중)
 1966년 4월호 : 「四·一九의 史的地位」(산문, 김인재), 「四·一九의 교훈」(좌담회, 김인순 외 4명), 「四月이 오면」(시, 김윤), 「四·一九의 용사들에게」(시, 신재현)
 1967년 4월호 : 「金朱烈의 祖國觀」(산문, 김인재), 「四·一九와 나」(산문, 재일학생 다수)
 1968년 4월호 : 「四·一九와재일청년학생」(좌담회, 김치남 외 7명), 「四月의 招魂」(시, 정영훈)
 1969년 4월호 : 「四·一九의 今日的 意義」(산문, 남상철), 「四月의 記錄」(산문, 김영곤), 「이땅에 四月은 또 오는가」(시, 이준범), 「그날 너는 내옆에 있었는데」(시, 김재원)
- 42) 경련이 쓴 4·19 혁명을 주제로 한 작품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四月아」(63년 4월호), 「팔없는 少女」(67년 5월호), 「그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사시나?」(72년 6·7월호), 「不死鳥」(75년 4·5월호), 「獅子들」(76년 4·5월호), 「오나라 四月이여」(79년 3·4월호), 「水踰里墓地에 杜鵑이 피를 토하며 울 때」(79년 3·4월호), 「四·一九 20주년」(80년 3·4월호), 「우리의 불길 -四·一九 義舉 23 돌에-」(83년 2·3월호). 정영훈이 쓴 4·19 혁명을 주제로 한 작품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四月의 廣場」(62년 4월호), 「「돌아온」날」(62년 12월호), 「새벽의 章」(63년 10월호), 「自由」(64년 3월호), 「四·一九를 回想하여」(수필, 64년

인용한 평론에서 정영훈은 4·19혁명이 우리에게 안겨준 것은 “의로운 젊은이들이 자신의 힘을 굳게 믿고 단결하여 일어선다면 능히 계절의 빛깔을 바꿀 수 있고 역사의 광란을 돌릴 수도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겨준 사실”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국가 발전 동력으로 사유해야 한다는 초기의 입장을 계승하면서도 70년대 중반 경련과 정영훈의 4·19 혁명 담론은 불의한 정치권력에 대한 항거에 더욱 방점을 찍는다.

이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한 강한 실망감이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와 통일 화해 무드가 점차 깨어지기 시작한 것, 그리고 1972년 10월 시작된 유신체제는 『한양』이 한국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에 변화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과 일치한다. 곧이어 1974년 일어난 소위 문인간첩단 사건⁴³⁾은 결정적으로 한국 정부와 『한양』 간의 노선 상의 결별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양』은 분명한 적대 의식을 가지고 한국 정부와 권력자, 부패 관료, 미국을 비판하고, 독재 항쟁 세력이나 인물을 옹호하면서 투쟁 의지를 북돋게 된다. 다시 말해, 『한양』에서 70년대 이전의 4·19혁

4월호), 「四月의 招魂」(68년 4월호), 「라이락이 필 무렵」(72년 2·3월호), 「四月의 詩」(평론, 74년 4·5월호), 「金朱烈의 말 -四·一九 열다섯돌에-」(75년 4·5월호), 「四月詩抄」(78년 3·4월호), 「천둥소리」(80년 3·4월호), 「四月의 아들들에게」(80년 5·6월호), 「1981·4·19」(81년 3·4월호).

43)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가 시작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1973년 대학생들 중심으로 크게 일어났다. 1973년 12월 24일 재야인사들을 중심으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가 시작되었고 문인들 또한 1974년 1월 7일 ‘문인 61인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거세졌다. 이에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가 내려지고 2월 25일 문인·지식인이 ‘간첩단’으로 검거되기에 이른다. 이호철, 임현영, 김우중, 정을병, 장병희가 구속되고 언론인 천관우가 조사를 받았다. 이들 문인·지식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김기십이 장간한 『한양』지에 지속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고료를 받으면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문인들은 무혐의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한양』지는 한국에 반입금지된다.(임현영, 「74년 문인간첩단사건의 실상」, 『역사비평』 1990년 겨울호 참조)

명담론이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의 구심점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했다면, 70년대 중반 이후의 4·19혁명담론은 한국의 정치적 불의와 경제적 허위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근거이자 에너지로 작동한 것이다.

한국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증오, 적대감으로 변화되는 양상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둘러싸고 제출된 시편들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이를 전후로 해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한양』에도 이에 발맞추어 통일을 염원하는 시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⁴⁴⁾ 그러나 이후 남북한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통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짐에 따라 『한양』은 노골적으로 남한 정부를 비판하는 논조를 보인다. 경련의 시편에서 이러한 변화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44) 1971년 9월 20일에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 이후, 남북회담을 의식하면서 쓰여진 시편들은 특히 72~3년에 많이 발표되었다.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양』 71년 10·11월호 : 경련, 「渴望의 詩」; 경련, 「새 날을 안고 오라」; 김성호, 「再會」

『한양』 72년 1월호 : 경련, 「祖國統一行進에 바치어」; 강민, 「黃昏에」; 윤동호, 「念願」

『한양』 72년 2·3월호 : 한춘섭, 「설악산의 울산마위」

『한양』 72년 4·5월호 : 박봉우, 「白頭山」; 김시형, 「故國에 띄우는 노래」

『한양』 72년 6·7월호 : 정영훈, 「하나의 祖國, 하나의 血脈」

『한양』 72년 8·9월호 : 이인석, 「깃발을 올려라」; 박일동, 「宣言」; 김소영, 「5000000의 起床 나팔소리」; 경련, 「統一路」; 경련, 「時想」; 양상경, 「문은 열리었다」; 김종원, 「동강난 핏줄이 이어진다」; 이승윤, 「고도부」

『한양』 72년 10·11월호 : 김상철, 「높은 곳으로!」; 경련, 「망부석」; 경련, 「열무 김치」

『한양』 73년 1월호 : 박봉우, 「너와 나는 하나의 民族이다」; 박봉우, 「언제 모두 만날거나」; 박일동, 「門」; 박일동, 「外勢는 물러가라!」

『한양』 73년 2·3월호 : 이승윤, 「고도부·4」

『한양』 73년 4·5월호 : 이인석, 「눈동자」; 양상경, 「메아리」; 박기문, 「7·4의 증언」

『한양』 73년 6·7월호 : 정영훈, 「渴望」

① 한치 앞도 분간 못하게/ 비는 억수로 퍼붓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쏟아져 나간다/ 북으로 향한 「統一路」로// 남남같이 말없던/ 南과 北/ 하나의 목소리로/ 세상에 소리쳤을 때-// 갈라져 잠도 잊고 기다리던/ 혈육의 정/ 구차스런 우리의 남루 속에서도 변치 않던/ 겨레의 열이// 아아!/ 머리 위에 쏟아지는 비도 이기고/ 가고파, 한발짝이라도 더 가고 파……// 허구한 나날/ 분열의 고통은 心火를 남기고/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도/ 무엇인가 죄스러워 지나기 저어하고// 모든 것이 끊어진 그 동안에도/ 남북 겨레의 마음과 마음들은/ 가시 돋힌 장벽 위에/ 하나의 統一路를 이어놓았으니// 오라, 이제 그 위에/ 내리는 소낙비보다 더한/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쏟을/ 相逢의 大民族史劇이여!

- 경련, 「統一路」 전문 (『한양』, 1972년 8·9월호, 154-155쪽)

② 강기슭에 막아선 장승같은 파수병/ 너는 누구냐?/ 「노-」란 어디 말이나?// 외세에 빌붙어/ 통일을 외면하고/ 분열에로 줄달음치는 무리들/ 너는 누구냐?// (중략) 세월이 준 이별이 길다고/ 그 누가 막는다고/ 부모 처자 동기간이/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영영 남일 수는 없다./ 남북 삼천리 금수강산이/ 너는 분열의 고통을 안고/ 몸부림 치지 않으리라// (중략)//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한 사연/ 쌓이고 쌓인 가슴들이/ 그대로 교각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 서로 만나보고 함께 살/ 統一의 다리를 놓자.

- 경련, 「만나고 싶은 마음 디딤돌이 되어」 부분 (『한양』 76년 6·7월호, 133쪽)

7·4 성명이 발표된 72년 8·9월호(통권 108호)는 ‘統一에의 熱願’이라는 주제로 8편의 시를 묶었고 경련은 그 중 2편의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①은 그 중 한 편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라, 이제 그 위에/ 내리는 소낙비보다 더한/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쏟을/ 相逢의 大民族史劇이여!”라 외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7·4 남북회담의 성과가 통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되레 남북 분위기가 경색 일변도로 고착되자 1976년에 발표된 ②에서는 “너”로 지칭되는 남한 정부가 미국에 국가수호를 맡기

고 남북 대결 구도를 이끌어냄으로써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시인에게 통일은 민족적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재일한인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잘 알고 있기에, 실향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정에도 깊은 공감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민족적 “분열에로 줄달음치는 무리들”의 존재다. 그들이 “분열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에의 당위를 방해하는 세력의 제거 없이는 “統一의 다리를 놓자.”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시인의 생각이다. 통일 방해 세력에 대한 적대적 인식은 정영훈 또한 “을사 오적들도 얼굴을 붉히는/ 一九六〇년대의 유신들은/ 權力の 頂上에서, 호화주택에서/ 오늘, 뉘뎀에 안겨 동족을 향해/ 핏발 선 눈알을 굴리고 있는가?”(『不問可知』부분, 『한양』 1976년 4·5월호, 105쪽)라고 따져 묻는 데서 확인된다.

같은 맥락에서, 4·19 혁명의 당위를 내세우는 시편들 또한 74년을 전후로 하여 적대적 타자를 타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면화한다.

三월에 죽었던 나는/ 四월에 다시 살아 났었다/ 형님들이 길가에 내던졌던/ 그 책가방들과 함께/ 그 붉은 피자국들과 함께// 나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축복 속에/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등산을 하고 있었다/ 나는 동터오는 남해 기슭에서/ 즐거운 새벽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살아 있었다/ 나는 웃고 있었다/ 나는 솟아오는 태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독문은 총알은/ 한강 기슭에서 날아 왔다/ 나의 눈에 다시 최루탄을 쏘아 박고/ 나의 가슴을 군화를 짓밟고/ 나의 팔을 비틀고 질질 끌고간 그 밤에/ 나는 다시 친구들과 헤어졌다// 아, 열다섯해/ 해마다 봄마다 나는/ 다시 죽어야 했다// 형님들이여, 아저씨들이여!/ 누나와 동생과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나를 일으켜 세워다오/ 四·一九 열다섯돌의 아침을/ 내가 살아 났던 그 아침을/ 나의 눈으로 또 한번 바라보게 해다오// 나를 다시 쏘아 놓힌 무리들/ 나를 짓밟고 선 무리들/ 나의 눈을 다시 멀게한/ 民主

의 적들을 향해/ 나를 세워다오// 민주회복의 성스러운 햇불을/ 내 손
에도 들게 해 다오!

- 정영훈, 「金朱烈의 말 -四·一九 열다섯돌에-」 전문 (『한양』
1975년 4·5월호)

위 시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주열의 죽음을 가져오면서
“나를 다시 쏘아 넣힌 무리들”인 현 한국의 독재정부를 겨냥하여 “민주
회복의 성스러운 햇불을” 들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구
호에 가깝게 주장하고 있다. 이제 4·19혁명의 로맨티시즘은 국가의 발
전과 근대화의 동력으로 전유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고, 4·19혁명이 그
랬던 것처럼 독재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당위로 치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0년대 4·19혁명 시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분명한 적대가 나
타나 있고, 그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과 혁명 의식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
기를 압도하고 있다.

해마다 봄마다/ 피에 젖던/ 흰 이마/ 불의를 가르며/ 황황히 불타는/ 강철
의 시선// 독한 최루탄 연기가/ 겹겹이 휘감긴/ 굵다란 목/ 발밑에는/ 철
조망에 찢기운/ 붉은 살점들……// 어찌 보면/ 철창 속에서 곧바로/ 북미
합중국으로 압송당한/ 김대중을 닮은/ 상기도 쇠고랑을 찬/ 무수한 정치
범을 닮은// 아니 해마다 봄마다/ 더운 피를 흘리게 한/ 파쇼 독재자들을
사육한/ 복마전(伏魔殿)에 도전한/ 자유와 민주의 과감한 기수/ 문부식과
그 전우들을 닮은// 스물 세해-/ 피속에서 자라난/ 불비 속에서 뼈가 굵어
진/ 四·一九여!// 예순번 쓰러졌다가도/ 사랑하는 땅을 안고/ 다시 일어난
/ 四·一九여! 四·一九여! 피로써 항쟁으로써/ 오늘을 이어오고/ 오늘로
살아 온/ 우리의 불길이어! 민족의 불길이어!

경련, 「우리의 불길 -四·一九 義擧23돌에-」 전문 (『한양』 1983년
3·4월호)

70년대 중반 이후 경련의 시 또한 4·19혁명을 한국의 “파쇼독재자들
을 사육한/ 복마전(伏魔殿)에 도전한/ 자유와 민주의 과감한 기수”들이
행하는 “항쟁”의 구심점으로 인식한다. “김대중”, “문부식과 그 전우들”

을 적대에 대항하는 항쟁의 주체로 내세우면서, 4·19혁명정신을 이어받은 그들의 투쟁과 희생이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한 “불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양』 게재 경련과 정영훈의 70년대 중반 이후 시편에서 그 전에는 없었던 전태일(경련, 「불」 1977년 9·10월호; 정영훈, 「산 불길」 1978년 1월호), 전태일 모친 이소선 여사(경련, 「어머니의 길」 1978년 5·6월호), 동일방직·방림방직 여공들(경련, 「딸들」 1978년 9·10월호), YH사건 때 사망한 김경숙(「김경숙의 목소리」, 1979년 11·12월호), 서승과 그 모친(정영훈, 「얼굴을 들라 徐勝이여!」·「徐勝형제의 어머니에게」·「青春」·「철창속에서」 1978년 9·10월호), 김지하(정영훈, 「별-김지하에게」 1975년 6·7월호)와 같은 독재에 맞서 투쟁한 인물들을 찬양하거나 그 행위에 의의를 부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1980년 ‘광주항쟁’⁴⁵⁾ 이후 특히 강한 적대감과 원한감정으로 형상화 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기실, 80년대 『한양』 소재 시편들의 대다수는 ‘광주항쟁’을 야기한 정권을 비난하고 숭고한 희생자들의 뜻을 기리며, 앞으로도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⁴⁶⁾ 경련과 정영훈의 시편들도 광주

45) 이 표현은 『한양』 1981년 5·6월호를 ‘광주항쟁 1주년 기념호’로 한 데서 가져왔다.

46) 80년 5·6월호 이후, 매해 광주항쟁을 되새기는 5·6월호만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0년 5·6월호 : 고은, 「분합니다」; 정영훈, 「안개길 韓國의 政治街道」; 정영훈, 「漢高祖의 震怒」; 정영훈, 「불」; 정영훈, 「4월의 아들들에게」; 김인숙, 「이제는 GO HOME!」; 김잔, 「박군의 새끼」; 김잔, 「유신과 쓰레기통」; 이유진, 「光州學生革命讚歌」.

81년 5·6월호 : 한성, 「自由光州의 불길」; 고원, 「땅속의 빛」; 고원, 「울지 않는 자는 가라」; 경련, 「아들이 돌아오라!」; 경련, 「광주의 소년」; 김인숙, 「별아」; 석진영, 「피눈물이 강물처럼 흘러」; 석진영, 「나는 거부한다」; 최연홍, 「한」; 최연홍, 「1981년 5월에」; 황갑주, 「이젠 독수리로 치유받고 있다」; 황갑주, 「이젠 그

이후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는 파탄난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하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세력을 적대시하고, 그와는 반대로 희생당한 광주 시민과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들에 대한 호의와 희망 역시 크게 갖고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4. 결론과 한계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경련과 정영훈은 『한양』이 걸어온 정치적 방향성과 같이 하면서 거의 300편에 이르는 시를 남겨놓았다.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경향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편들을 주로 제출하던 경련과 정영훈은 점차 한국 사회의 시대 현실에 깊게 조응하면서, 이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혁명 의지를 다지는 시편들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 경향이 바뀌어갔다. 그러나 그 본질에는 개인의 내면적 정서를 형성하게 한 디아스포라로서의 자기 의식인 ‘비에’와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민족 관념에 뿌리 박은 당위적 현실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시인의 자기 의식과 세계 인식은 『한양』의 편집방향과도 대체로 일치하며, 그러했기에 창간 초기부터 종간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시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대들의 것...; 이세방, 「한국의 모든 문필인 언론인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정영훈, 「밤」; 정영훈, 「신문지 위에 쓰는 시」; 박일동, 「저주의 시」; 김잔, 「양피」; 김잔, 「급류」; 이유진, 「작은 풀들이여」.

82년 5·6월호 : 한성, 「역사는 피바다를 넘어」; 한성, 「피의 분수여」; 한성, 「끝나지 않은 전야」; 경련, 「무등산에서」; 경련, 「운명의 서곡」; 경련, 「오월」; 김인숙, 「아아! 오월이여」; 김승진, 「우리의 대오」; 김승진, 「피안은 멀어도」; 이세방, 「복엽채송화」; 박일동, 「전환」; 박일동, 「어느 한 수인」; 성원진, 「북극에서」.

83년 5·6월호 : 정영훈, 「불타버린 5월」; 정영훈, 「충」; 한성, 「광주의 5월」; 박일동, 「한 사형수의 말」; 박일동, 「검은 흔적」; 황갑주, 「광주」; 황갑주, 「이남이여 이북이여」; 경련, 「광주」.

경련·정영훈을 비롯한 『한양』 게재 재일한인시인들의 시편에는 다분히 투쟁적 성격이 강하고 교조적인 태도를 풍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작품을 미학적 완성도의 여부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내리기는 무척 망설여지는 일이다. 경련과 정영훈의 시에서도 이미지 제시 방식은 유사한 이미지들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단조롭고, 표현은 단호하면서도 구호적이기에, 매우 경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7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정부를 분명한 적대의 대상으로 설정하면서부터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재일한인 시인들 가운데 경련이나 정영훈만큼 한국의 시대 현실과 조응하면서, 특정한 잡지에 오랫동안 시를 써 온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그들의 시편은 한국의 부조리한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한 작품들이었기에, 당대 한국의 문학인들이 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작품으로 형상화해 왔다는 점만으로도 일정한 문학사적 평가를 받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시작품의 미학적 성과를 논하기에 앞서, 재일한인 시인들이 왜 이처럼 경직된 시편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문학사적 맥락에서도 훨씬 생산적이고 풍성한 결실을 얻는 방법론적 시각이 될 것이다.

경련과 정영훈을 비롯해 『한양』을 통해 시작 활동을 해 온 재일한인 시인들은 대체로 1940년대 전후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문학활동을 한 재일한인 1세대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까지 1세대의 문학활동에 관한 연구는 김달수·김사랑·김석범·이회성·장혁주 등 일본문단에 널리 알려진 작가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양』 소재 작가들은 그들과 다른 문학 환경에서, 매우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해 왔다는 점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재일한인 1세대 문학사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양』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문학적 의의가 더 많은 연구성과물로 축적된다면, 재일한인 문학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며, 그만큼 깊이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고는 『한양』 소재 경련과 정영훈의 모든 문학작품들을 대상 텍스트로 삼아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그 문학적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재일한인시인의 한 단면을 살폈을 뿐 아니라 이 시인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한양』의 문학적·정치적 방향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 또한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한양』 소재 많은 재일한인시인들 중에서 2명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또한 시인의 실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진 텍스트만으로 작품의 경향과 『한양』의 편집 방향과의 조응 관계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한양』의 문학적 방향성을 비평이나 소설, 수필과 같은 문학작품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고, 『한양』의 편집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특집들과의 연관도 깊이 있게 살피지 못했다. 이는 그만큼 『한양』에 대한 더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이 잡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다각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살피지 못한 많은 결여들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漢陽』 1962년 3월호(창간호) - 1984년 3·4월호(중간호), 『思想界』 1960년 6월호.

2. 단행본 및 논문

고명철,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1960년대 비평 담론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19집, 한민족문화학회, 2006, 247-278쪽.

김유중, 「장일우 문학비평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7집, 2005.06, 389-421쪽.

김주현, 「1960년대 ‘한국적인 것’의 담론 지형과 신세대 의식」, 『상허학보』 16, 2006.02, 379-410쪽.

박수연, 「1960년대의 시적 리얼리티 논의 -장일우의 『한양』지 시평과 한국문단의 반응」, 『한국언어문학』 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217-238쪽.

이재봉, 「국어와 일본어의 틈새, 재일 한인 문학의 자리 -『漢陽』, 『三千里』, 『靑丘』의 이중 언어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7집, 2007.12, 163-199쪽.

이헌홍, 「에스닉 잡지 소재 재일한인 생활사소설의 양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47집, 2007.12, 111-162쪽.

_____, 「『한양』 소재 재일한인문학의 연구 방향과 과제」, 『한국민족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101-122쪽.

_____, 『재일한인의 생활사이야기와 문학』, 부산대학교출판부, 2014.

임헌영, 「74년 문인간첩단사건의 실상」, 『역사비평』 1990년 겨울호,

283-301쪽.

조현일, 「『한양』지의 장일우, 김순남 평론에 나타난 민족주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06, 543-572쪽.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 연구 - 『한양』, 『청맥』, 『창작과비평』, 『상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_____,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42집, 한국문학회, 2006, 391-417쪽.

_____, 『한국문학과 역사의 그늘』, 소명출판, 2008.

_____,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비평전략』, 소명출판, 2008.

_____, 「장일우 문학비평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30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08, 123-149쪽.

_____, 「김순남 문학비평 연구」, 『우리문학연구』 31집, 2010.11, 631-659쪽.

_____,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적 이해』, 소명출판, 2011.

한승우, 「『한양』지에 드러난 재일지식인들의 문제의식 고찰」, 『어문론집』 제36집, 중앙어문학회, 2007, 247쪽-268쪽.

허윤희, 「1960년대 참여문학론의 도정- 『비평작업』, 『청맥』, 『한양』을 중심으로」, 『희귀잡지로 본 문학사』, 상허문학회 편, 깊은샘, 2002, 99-122쪽.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Poems
published in 『Hanyang』
- focusing on poems of Kyoung Ryun and Jeong
Young-hun

Son, Nam-hoon

『Hanyang』 was a comprehensive magazine concentrating and leading political, social, cultural discussion by Koreans in Japan for over 20 years. However, it has been difficult to identify its actuality so far due to a great deal of text materials, prohibition of carrying into Korea after mid-70', and omission of the author's biographical information.

This papers aims to study 『Hanyang』's editorial direction, which hasn't been organized yet, and other related literatures through examining Kyoung ryun and Jeong Young-hun's literary world who contributed poems the most to 『Hanyang』.

In 1960's, 『Hanyang』 did not present it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directivity clearly, which is related in that Kyoung Ryun and Jeong Young-hun's initial work had sentimental view of the world based on diasporan perception.

But 『Hanyang』 had consolidated its identity by consistently producing discussion that recovery of tradition can identify nationality, which can be a base for achieving Korea's development. Kyoung Ryun and Jeong Young-hun's work also presented poetic imagination

aiming to recover ethnic identity through interpellation of traditional image.

In addition, 『Hanyang』 produced and possessed 4·19 Revolution's significance as 'revolutionary romanticism' and make it as a central pillar for social development. The aspect of revolutionary romanticism can be found in poems of Kyoung Ryun and Jeong Young-hun about 4·19 Revolution in 1960's.

After mid-70's, however, 『Hanyang』 turned their directivity from pro-government into against-government encouraging resistance against military dictatorship by criticizing Korea and U.S. government as well as advocating those who resist against dictatorship. Kyoung Ryun and Jeong Young-hun also showed their transformation in literary world by presenting slogan-like and stiffen poems filled with criticism and hostility against Korean government.

Key Words : Hanyang, Kyoung Ryun, Jeong Young-hun, Koreans in Japan, diaspora, tradition, nation, 4·19revolution, editorial direction, literary world

■ 논문접수 : 2015년 6월 8일

■ 심사완료 : 2015년 8월 15일

■ 게재확정 : 2015년 8월 20일